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착어로 문학하기 기념 작품집

우리는 우리의 말을 싣고 간다



International Academic Forum
Sustainable Development of Indigenous Languages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
: '토착어로 문학하기' 작품집을 발간하며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아래 '사업회')는 2023년 11월, 제4회 유네스코 · 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에서 토착어(토박이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 번째 '토착어로 문학하기'를 진행합니다. 2021년 12월, 유엔이 선포한 '세계 토착어 10년(2022-2032)'에 맞춰 사업회와 유네스코는 지구촌에서 사라져 가는 토착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고자 그 실행 방안으로 '토착어로 문학하기'를 제안했습니다.

지난 2021년 제2회 유네스코 · 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에서 시범 사업으로 처음 추진된 '토착어로 문학하기'에서는 토착어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창작 과정을 공유할 뿐 아니라 토착어 사용자의 낭독 영상을 매체로 기록해 보존하는 등 토착어의 채집과 기록을 넘어 문학작품의 창작과 향유를 통해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상상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오오담어(O'odham)로 창작 활동을 하면서 아메리카 원주민의 구술 문학을 연구하는 오펠리아 세페다 시인은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이야기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담긴 역사를, 기억을, 믿음을 함께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말과 이야기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되새기게 하고 동시대 사람들에게 전파되며,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오펠리아 세페다 시인을 포함해 올해까지 '토착어로 문학하기'에 참여한 문학인은 모두 17명입니다. 그들은 한반도와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서 소멸 위기에 빠진 토착어로 작품 활동을 하며 토착어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언어, 그들의 노래를 한자리에 모아 놓은 '토착어로 문학하기'

는 지구촌의 모든 경계를 초월해 우리가 잃어버릴 번한 말과 이야기의 잔치였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잔치의 즐거움과 감동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지난 3년간 치러진 '토착어로 문학하기'를 기록해 기념하고자 작품집으로 엮었습니다.

사업회와 유네스코는 '토착어로 문학하기'를 통해 전 세계 토착어 사용자들과 함께 소멸 위기의 토착어 보존이라는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고요히 타오르는 촛불이 꺼지지 않고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토착어 작품집에 실린 문학인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들의 토착어 작품 활동으로 토착어가 보존되고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 11월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

민현식

목차

알레한드라 사실 산체스 찬 Alejandra Sasil Sánchez Chan — 10

Teen le ko'olelo' / 나는 여자다 12
Sáastal / 새벽 14
U xiixel wíinik / 인간의 부스러기 16

미겔 안헬 옥슬라흐 쿠메스 Miguel Angel Oxlaj Cúmez — 18

Ri awän / 옥수수밭 20
Ri raqän ya' / 강 22
B'alam Juyu' / 재규어 산 24

쇼바 수누와르 Shobha Sunuwar — 28

ᤶᤢᤰ: ᤀᤢ (Ran fu) / 월경 30
ᤖᤢᤘᤢᤛᤢᤘᤢ (Khadimudi) / 자연 34
ᤤᤢᤛᤢ ᤘᤢᤢᤤᤢ (Liku Debla) / 강의 특성 38

응제리 왕가리 Njeri Wangarĩ — 42

Wendo nĩ ihũa / 사랑은 한 송이 꽃 44
Gĩkũyũ to kũaria tu / 기쿠유는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네 48
Ũrĩ Waigua / 당신은 들어 본 적 있나요 52

콜라 투보순 Kọ́lá Túbọ̀sún 56

Láti Inú Òkùnkùn, Wà Légbẹ̀ẹ́ Mi / 어둠을 지나 그대는 내 곁으로 58
Ìtẹ́tísí / 듣기 62
Ìwárí Òjò / 비의 발견 64

강덕환 Kang Dukhwan 66

우화(寓話) 68
오몽 70
게미융헌 식상 72

송시연 Song Siyeon 74

쇄지고기 76
가마치 80
김치. 84

오펠리아 세페다 Ofelia Zepeda 86

D. 'ac 'O'odham / 우리는 파파고족(族)이다 88
Ñeñe'i Ha-ṣa:gid / 노래의 한가운데에서 90
S-cegĭto g Ñeñe'i / 노래를 기억하며 92

야나 루실라 레마 오타발로 Yana Lucila Lema Otavalo —— 94

KANCHIKRA / 아직 우리는 여기에 96
ÑUKA PURI / 나의 길 98
HAWA PHUYUPI SARA SISA / 구름 속의 옥수수 꽃 100

이대흠 Lee Daeheum —— 102

아름다운 위반 104
늦가을 들녘 106
오래된 편지 108

마르조리에 에바스코 페르니아 Marjorie Evasco Pernia —— 116

ORIGAMI / 종이접기 118
ANG TIKAROL BA KADTO? / 그것은 물총새인가? 120
Krutsay / 크룻사이 124

이명애 Lee Myoungae —— 136

그리운 손맛 138
만원입니다 140
축구 선수 142

창가미어 음찌지 Changamire M'zizi 144

MALILIME / 혀 146
KULA / 성숙 154
UNTHU / 인간다움 166

사키야마 다미 Sakiyama Tami 172

ゆらてぃく　ゆりてぃく / 흔들리며 흔들리다 174
ホタラ綺譚余滴 / 호타라 기담 여적 182
磯端のウタサー砂上に踊る / 물가의 노래 모래 위에 춤추다 186

이본느 아드히암보 오우어 Yvonne Adhiambo Owuor 194

Bahari ya Kereng'ende / 잠자리 바다 196

오디 곤잘레스 Odi Gonzales 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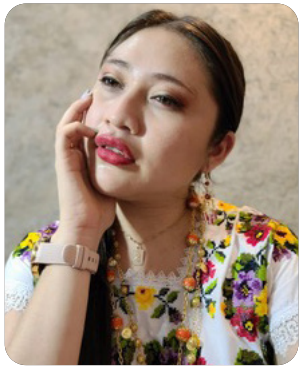
UMANTUU / 우만투 208
Q'ESINTUU / 퀘신투 212
ARCABUZNIYOQ MAMACHA / 머스킷총을 든 성녀 216

안상학 Ahn Sanghak 220

뒤저구꽃 222
아배 생각 224
안동식혜 226



알레한드라 사실 산체스 찬
Alejandra Sasil Sánchez Chan



멕시코 시인

1991년생으로 멕시코 유카탄주 테카시(Tekax)시 샤야(Xaya) 출신이다. 멕시코 국립 예술 센터(State Center of Fine Arts)에서 마야어 문예 담당자로 활약하고 있다. 현대 마야어 작가의 작품집인 『세이바의 새 노래(U túumben k'aayilo'ob Xya'ache')』 제2권에 참여하고 유카탄주 문화국장이자 출판사 아티코(Ático) 대표가 편집을 맡은 마야어 시집 『우 욜 탄(U yóol t'aan)』을 출간하는 등 다양한 간행물과 선집에 작품이 실린 바 있다. 「쉬 메옌 날(X Mejen Nal)」 (2016)이라는 제목의 시로 멕시코 말의 혼(To the Spirit of the Letter)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시 「얀탈(Yantal)」 (2020)로 쓰는 시간(Writing Times) 문학상을 받았다. 현재 신문 《라 호르나다 마야(La Jornada Maya)》의 마야어 칼럼 킨칠(K'iintsil)의 편집인을 맡고 있으며, 솔이루나(Solyluna) 학교, W.K. 켈로그 재단, 오하이오주립대와 협력하여 마야 공동체 내 읽기 사업을 관장하고 있다.



Teen le ko'olelo'

Teen le tuupul t'aano', le ma'atech u ya'alalo',
le xíixik oot'elo', le teejel yéetel k'aak'as tuukulo'obe',
le boox oochelo', le ku sa'atal kex yaan máax ku paakat.
Teen le sáal k'abo', le ku pe'ech'el yéetel u muuk' xiib.

Teen le chaknul wíinkilalo', le joronts'íibta'an yéetel po'opoch'il,
le ku xíinxíimbaltik lu'um yéetel u k'aayil jets' óolal,
le ku tsa'atsayik u yoot'el ti'al u k'ak'atmáan u ch'i'ibalil.
Teen le máax búukintik p'eekil ti'al u ch'a'ak u yiik' máan k'iin.

Teen u sóol uj, le ku yila'alo', le ma'atech u yu'ubalo',
le ku yáalkab yéetel ja'o', le ku u ja'chajal ichil u beel noj kaaj,
le ku much'ik kóokayo'ob ti'al u ch'ajik sáasil tu yich máak,
Teen le yáax ko'olel, le ku jayik u moots ti'al u núup'ul lu'um yéetel wíinik.

나는 여자다

나는 죽은 단어, 발음하기 너무 어려운 말이다,
어두운 생각들의 힘으로 망가진 금 간 피부다,
검은 그림자, 힐끗 보는 사이에 사라진 누군가이다.
나는 가벼운 손, 인간의 힘에 으스러진 손이다.

나는 발가벗은 몸, 모욕으로 장식된 몸이다,
평화의 노래들로 지구를 여행하는 자이다,
피부를 엮고, 혈통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는 자이다.
나는 시간에게 휴식 시간을 주기 위해 몸에 분노를 걸친 자이다.

나는 달의 껍질, 보이지만 들리지는 않는 자이다,
흐름에 맡기는 자, 도시의 혈관을 흐르는 액체가 되는 자이다,
인간의 두 눈에 빛을 주기 위해 반딧불이를 모으는 자이다,
나는 여자다, 지구와 인류를 결속시키기 위해 뿌리를 펼치는 자이다.



Sáastal

Tu ts'u' áak'ab ka'aj líik' in na' u jop k'áak', U bóoch'intmaj u nook'il eek'o'obti'al u julik u beel;
tu takaj u káakach si'ob tu k'óobene',
tu t'abaj u k'aay u yalak' t'eel
yéetel ch'íich'o'ob t'inikbalo'ob tu ts'o'otselo'obe';
tu je'ek'abtaj joolnaj.
Tu nej juntúul kóokaye',
tu joro'ost'aj ch'ili'ib ti'al u ts'áak tu chúuk, tu t'abaj k'iin. Sáaschajij.

새벽

한밤중에 어머니가 일어나셔서 별로 가득한 숄로 불을 피우셨다
어머니는 자신의 길을 밝히셨다,
어머니는 나무 조각을 모아 스토브에 올리셨다.
수탉이 울었고
어머니의 머리카락 안에서 쉬던 다른 새들도 울었다,
어머니는 문을 여셨다.
반딧불이의 자취로
어머니는 성냥을 그어 석탄을 지피셨다,
해가 환히 밝아왔다. 동이 텄다.



U xiixel wíinik

K'uch u k'iinil ka'aj jáat k'óoben,
ichile' ti' láaj jóok' u kuuxumil multunil.
Lalaj súutuke' ku wóojol u beel síinik
ikil u máan u kaxt u yo'och tu sojolil waaj.
Che'eche' ch'óoy, paj xaamach,
su'uts' báanketáaj. tikin k'áak'.
je'el bakáana', u ja'il u ts'ook luuchil eets'ekbal yóok'ol ts'eeke'
chéen néentajil u ka'aj.
Ts'o'okili' u yáax a'alale',
yaanili' ksúutul u mejen ba'alche'ilo'ob
u kaaxanil kuxtal ichil u xiixel ts'u'uts'uuy wíinik.

인간의 부스러기

어느 날 부엌이 내려앉았고
안쪽에서 한 무리의 곰팡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개미들은 줄지어 가던 길을 떠나
먹이를 구하고자 남은 토르티야로 향했다.
대충 만든 양동이, 녹슨 코말[1] ,
상한 테이블, 마른 불.
토대에 남아 있는 마지막 조롱박의 물
그것은 그냥 거울이다.
그것은 어떤 징조였다
우리는 인간이 겪는 곤란이라는 부스러기 속에서
인생을 찾는 벌레가 되어야 한다.

1 코말(comal): 멕시코 지방에서 토르티야 등을 만들 때 사용하는 매끄럽고 평평한 철판.

미겔 안헬 옥슬라흐 쿠메스
Miguel Angel Oxlaj Cúmez



과테말라 시인

미겔 안헬 옥슬라흐 쿠메스는 마야 카치켈족이며 치숏(과테말라 코말라파) 출신이다. 과테말라산카를로스 대학에서 대중 매체 커뮤니케이션 학위를 받았으며,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몬드라곤 대학에서 언어 재활성화 특별 과정을 이수했다. 마야 카치켈 대학 치숏 캠퍼스의 교수이며, 노동조합장이자, 토착어 사회/디지털 운동가이다. 온라인 라틴 아메리카 토착어 축제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과테말라산카를로스 대학의 대학개혁위원회에서 마야족, 가리푸나족, 싱카족(UMAX) 대변인을 맡고 있으며,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도미니카공화국의 국제 공공서비스 기구(ISP)에서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등 차별 대항 운동의 대변인이기도 하다. 카치켈라탁 치바넬라(Kaqchikela'taq tz'ib'anela') 와 아이칩(Ajz'ib')의 회원이다. 2009년 바츠(B'atz) 과테말라 토착어 문학상을 수상했다. 소설집 『사리마의 임무(La misión del Sarima)』, 『절반의 여자(Mitad mujer)』와 시집 『망각의 평야(Planicie de olvido)』를 출간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시가 카치켈어 혹은 스페인어로 온라인 잡지 및 선집에 실렸다. 과테말라 교육부 선정 교과서에 100여 편의 이야기를 실었으며, 이는 켁치어, 맘어, 키체이어, 츠터힐어, 칸호발어, 아치어, 이실어 등 다른 마야 어족으로도 번역되었다. 스페인어와 모어인 카치켈어로 시와 소설을 쓴다.



Ri awän

Nixajon ri awän
ri awän ni xajon
rik'in ri kaq'iq'

Nib'e ke la', nipe ke re'
nib'e ke la', nipe ke re'

Jjjjjjjjjjj, yewajäj ri ruxaq
Q'q'q'q'q'q', yeq'utut ri rajij

Ri kaq'iq' rutijlo'n ranin
ri awän netz'an rik'in

Ja k'a ri jun jopaj ch'oki'
ch'ok ch'ok ch'ok ch'ok ch'ok ch'ok
yejopop paruwi' ri awän
koyob'en chik toq xtelpe ri nab'ey äj

옥수수밭

옥수수밭이 춤추네
춤추네, 옥수수밭이
바람의 리듬에 맞춰

이쪽으로 흔들렸다, 저쪽으로 흔들리네
이쪽으로 흔들렸다, 저쪽으로 흔들리네

흐흐흐흐흐, 이파리 스치는 소리
크 크 크 크 크, 갈대 바스락거리는 소리

바람이 주위를 뛰어다니며
옥수수밭이랑 같이 놀고

한 무리의 작은 앵무새들이
촉 촉 촉 촉 촉
밭 위를 날며
옥수수의 첫 이삭이 무르익길 기다리네



Ri raqän ya'

Tijisis b'eneq qa
chi ki kojolil ri k'ichelaj
chi ki kojolil ri nimaläj taq juyu'
rik'in ruraxal ri raxab'äj
b'eneq qa chirij ri retal ruxik'anik ri Kukulkan

Nujachala' kan ri k'aslemal
chike konojel ri yeruk'ul kan pa rub'ey
numolola' k'a el ri kib'is ri kiq'axomal
richin nuk'achorisaj kan ri kik'u'x

Ri raqän ya' jun nim k'ojlemal
ja la' ri ruy'al ri rutz'umal
ri loq'olaj Qate' Ruwach'ulew

강

강이 뱀처럼 굽이치네
무성한 초목 사이로
산과 계곡 사이로
신비로운 옥빛을 띤 채
쿠쿨칸[1] 의 발자국을 따라

흘러가며, 흘러가는 길에 있는 모두에게
생명을 베푸네
그들의 기쁨과 슬픔 거두어들이고
그들의 마음 정화시키네

강은 신성한 존재
어머니 대지의 가슴에서
솟아오르는 젖이라네

1 쿠쿨칸(Kukulkan): "깃털로 덮인 뱀"이라는 뜻으로, 중앙아메리카에서 숭배하는 뱀신이다.

B'alam Juyu'

[Chi re ri xtz'eton toq xetaq
ri qati't qamama' pa taq sipan samaj
chu wuxik ri kape]

Ja k'a ri Kej ri k'äs pa nuk'u'x, xub'ij chuwe:
¡katanin!

Ja ri' k'a toq
kisumin xixule' pe chi rij ri xkanul
kirejej, kitzok'yaj yinpeteneq
yinanimäjneq pe
woqotan pe ri aq'ab'äl
ustape' k'a kan e nïm kaqän ri nuxak
ri b'alam xab'ama yiruchap

Ruma k'a ri' xinnojij
pa jotöl yiropin
chikaj k'a xiropin kan xab'ama yenwil ri taq ch'umil kik'in ri wuk'a'
Ja ri k'a toq xinnab'ej
chi junam nub'än ri b'alam
pa jotöl chuqa niropin
yalan aninäq, yalan chanin niropin
ruma' ri' ri taq q'ëq retal

xkiyuj la' ki' kik'in ri taq retal ri saqil

Ja ri' k'a toq xinnojij xixule' qa pa ruqajib'äl ri q'ij
xixik'an pa ruq'a' ri kaq'ïq'
xib'yin chuwäch ri taq'aj, xinwichinaj
Po toq xitz'un kan chwij
nintz'ät chi ri b'alam
ntajin na niropin k'a pa jotol jotol
kan nïm k'a runimirlem ri rutzok'
kan chanin k'a
ruma ri' xupo' ri' jun nimaläj juyu'
ruk'wa'n k'a rub'i':
B'alam Juyu'



재규어 산

[몇 대에 걸쳐 남미의 커피 농장으로
끌려갔던
강제 이주민들의 목격자에게]

그리고 내 안에 사는 사슴이 나를 꾸짖었네:
뛰어!

그래서
나는 비탈진 화산을 뛰어 내려갔네
꼴사납게 구르며
달아났네
저녁놀을 쫓으며
그리고 그렇게 펄쩍펄쩍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규어*는 나를 찾아냈네

붙잡히는 대신, 내 머릿속에는
높이 뛰어올라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네
그래서 나는 뛰어올랐네, 별이라도 들이받을 듯이
그리고 나는 깜짝 놀랐네
재규어도 나랑 똑같이 뛰어올랐으니까
녀석은 정말 높이
정말 재빨리 뛰어올랐네

나는 녀석의 검은 반점이
꼭 불빛인 줄로만 알았네

남쪽의 평지로 몸을 던져야겠다고 결심한 나는
바람과 함께 미끄러지듯 달렸고
평원을 가로질러 목적지에 도달했는데
그때 뒤를 돌아보니
계속해서 정말 높이
정말 재빨리 뛰어오르고 있는
재규어가 보였네
녀석은 거대한 언덕이 되어 있었고
'재규어 산'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네



쇼바 수누와르
Shobha Sunuwar



네팔 시인

쇼바 수누와르는 네팔에서 사용되는 코인츠 수누와르어(Koĩts Sunuwar language)로 시를 쓴 최초의 여성 시인이다. 코인츠어로 쓰인 시집 『쿠린단킨(Khurindankhin)』(2015), 『우루(Urur)』 (2017), 『상미(Sangmi)』 (2019)를 출판했다. 네팔 및 해외 각지의 여러 문학 세미나에서 코인츠 수누와르 시인 대표로 참석했다. 네팔의 코인츠 수누와르 토착 민족을 대표하는 중앙 기구인 수누와르 복지회에서 재무 위원을 맡고 있다. 여성 분과인 수누와르 여성회에서는 총무를, 네팔 토착 문학 및 작가 연합에서는 코인츠 위원회 조직위원직을 수행 중이다.

네팔 동부의 라메찹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며 1990년부터 시를 써 왔다. 2019 세계 토착어의 해 동안 유네스코의 공식 협력 매체였던 네팔 토착어 방송국에서 코인츠어 진행자를 맡고 있기도 하다. 네팔 최초로 코인츠어로 발행하는 월간 잡지 《함소(Hamso)》의 부편집장이다. 12학년까지 교육을 끝마쳤으며 현재 네팔 카트만두에서 딸 둘과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



ᚱᚨᚾ: ᛟ2 (Ran fu)

ᛃᛇ ᛃᛇ ᚺᚾᛈᛏᛗᛏ ᚠᛞᚻ ᚠᛞᚢᚤᛟ

ᛈᛞᚱᛃᚱᛞ ᛏᛟ: ᚺᛃᛇᛗᛏ ᚤᛟᛞᚱᚤᛞ ᚠᛞᚢᚤᛟ

ᚢᛇᛊ ᛞᛞ ᚻᛇᚺᛞᛏᛏ ᚢᛇᛊ ?

ᛏᛞᛊ ᛞᛞ ᛃᛇ ᛏᛞᛊ ? ᛈᛞᛏ ᛇᛈ

ᚺᛇᚢᚠᛇᛏ ᚱᛇᚾᛈᛏᛗᛏ ᚱᛏᛈᛇᚤᛟ ᚢᛟᛞᛇ:ᚤᛟ

ᚢᛟᚱᚢᚺᚱᛞ ᛗᛞᚤᛟᛇᛈᛇᚤᛟ ᚢᛏᚱᛞ

ᚢᛟᛈᚺᛞ, ᛃᛇ ᛈᛇᚱᛏᚱᛞ ᚢᛟᛞᛇ:ᚤᛟ

ᚻᛞᛏ ᚻᛟᛏ ᚺᛇᛏ:ᚢᛏᛗᛏ ᚤᛏᛇᛗᚤᛟ ᚢᛟᛞᛇᚾᛟ

ᚢᛇᛈ ᛟᛏᛟᚱᛏᛏᛇᚤᛞᛗᛏ ᚱᛏᚢᚤᛟ ᚢᛟᛞᛇᚾᛟ

ᛞᛇᛞᛏᛇᛟᛇᛞᛏ ᛇᛞᛈᛇᛞ

ᚱᚤᛏᛗᚢᛞᚱᚻᚱᛞ ᛞᛇ ᛟᛟᛇᛇᛏ ᛗᛞᚱ ᚢᛇᚱᛞ ᚢᛟᛞᛇᚾᛟ

ᚢᛁᛇ: ᛟᛇᛞᚺᛏᚱᛏ ᚤᛏᛇᚱᛞ ᛟᛟ ᛇᛞᛈᚱᛞ ᚤᛞᚱᛟ ᚾᛟᛟᛇᚱᛞᛞᛞ

ᚻᛞ:ᛏᚾᛇᚺᛏ ᚺᛏᛏᛟᚢᛏᚱᛏᛏ ᛇᚷᛏᛟᛇᛟ ᛒᚢᛟᛇᚠ ᛒᚠᛇᚱᛇ

ᚾᛏᛟ ᚢᛟᚢᛇᚤᛟ ᛟᚤᛟᛇᛟᛗ ᛗᛏ ᛗᛏᚢᛏᛗᚷᚾᚷᚻᛞᛏᛏ ?

ᚱᛞᚱᛞ ᛟᛟ ᛞᛞ ᛗᛏ:ᚢᛏᛗᚷᚾᛇ ᚤᛞᛗᛏ

ᛇᛏᛇᛏ, ᚺᛟᚾᛟᚢᛗᛏ, ᛊᛞᛗᛏ ᛟᛟ ᛗᛏ:ᚢᛏᛗᚷᚾᛇ ᚤᛞᛗᛏ

ᚢᛟᚢᛟᚢᚾᛗ ᚢᛞᚢᛏᛗᚷᚢᛏ ᛒ ᚾᛏᛟᚤᛇᛏ ᛒ ᚻᛞᛇᛟ ᚾᚷᚾᛇ

ᛊᚷᚤᛏᛇᛏ ᛇᚷᛟᛒ ᚾᚷᚢᛏ

ᚱᚷᚤ ᛏᛞᛏ ᛏᚾᛏᚠᛟ

ᚻᛞᚢᚷᚢᚱᚢᚤᛟ ᚢᛟᛞᛇᚾᛟ

ᚤᛞᚱᛏ ᛏᛞᛏ ᛒᚠᛏᛏᛇ

ᚾᛏᛟᚾᛏᛟᚾᛞᚱᛏᛏ ᛒ ᚾᛏᛟᚤᛇᛏ ᛒ ᚻᛞᛇᛟ ᚾᚷᚾᛇ

ᚠᛏᛇᛏ, ᚺᛟᚾᛟᚢᛗᛏ, ᛊᛞᛗᛏ ᛟᛟ ᛗᛏ:ᚢᛏᛗᚷᚾᛇ ᚤᛞᛗᛏ

ᚾᛞᛗᛞ ᛟᛟ ᛞᛞ ᛗᛏ:ᚢᛏᛗᚷᚾᛇ ᚤᛞᛗᛏ

ᚻᛞᛗᛞ ᛟᛟ ᛞᛞ ᛗᛏ:ᚢᛏᛗᚷᚾᛇ ᚤᛞᛗᛏ

ᚤᛞᛗᛏ ᚢᛟᛞᛇᚾᛟ ᚤᛟᛊᛇᛟᛗ ᛗᛏ ᛗᛏᚢᛏᛗᚷᚾᚷᚻᛞᛏᛏ ?

ᚻᛞᛗᛞ ᛟᛟ ᛞᛞ ᛗᛏ:ᚢᛏᛗᚷᚾᛇ ᚤᛞᛗᛏ

ᚻᛞᛗᛞ ᛟᛟ ᛞᛞ ᛗᛏ:ᚢᛏᛗᚷᚾᛇ ᚤᛞᛗᛏ

ᚻᛞᛗᛞ ᛟᛟ ᛞᛞ ᛗᛏ:ᚢᛏᛗᚷᚾᛇ ᚤᛞᛗᛏ

월경

두려움에 가득 차
가슴속에 온갖 감정 넘쳐흐르는데
나는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마치 우뚝 솟은 산에 깔려 뭉개지는 듯한
불편함의 매듭
어디로 어떻게 불어 가야 하나?
피의 웅덩이에 빠져 익사한 듯한
지독한 통증
몹시 고통스러워
스스로 좌절감이 드는데
세상에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뭘 해야 할까,
밖으로 나가기에는 머리가 너무 무거워
쏟아지는 수많은 질문들
여자의 삶이란 얼마나 멜로드라마적인 것이란 말인가?

어머니도 한 사람의 여자다,
할머니, 시누이, 여형제도 한 사람의 여자다.
나는 자연의 생명주기를 헤아려 보며
부끄러워하는 잡초처럼
얼굴 붉히고,



감각에 자극되어
주근깨가 생긴 마음으로
행복을 남몰래 찬양한다,
삶의 베이스캠프에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세상에서 탈출하는 것처럼.
생명의 운 좋은 창조자,
자연의 선물인 월경이 생명의 꽃처럼 피어오른다.



ᑎᐄᑕᒥᓂᑕᐧᐃ (Khadimudi)

ᖃᓄᐊᓕᒫᓂᐅᓂᖅ ᐊᒪᐄᑐᐃᓕᒫᑕᐧᐃ ᐄᑕᐃᓕᒫᓂᐅᓂᖅ

ᐊᓯᐅᓂᐊᐄᓄᐃᖅ ᐊᓯᓕᓂᐅᓂᖅ ᒫᓂᐅᒫᓂᐅᓂᖅ ᐊᓂᔨᔨᓂ

ᓄᐄᒧᓂᖅ ᓂᐅᓕᓂᖅ

ᓄᐄᐊᑎᐅᒫᓂᖅ ᓂᐄᑕᐃᓕᒫᖅ

ᖃᓄᐊᓂᐄ ᒫᐄᐄᐄᒫ ᒫᐄᖅ ᐊᑐᖅ

ᐊᓯᓂᐄᐄᓄᐃᖅ ᕐᓂᔨᓂ ᑎᑎᐅᑎᐊᑐ

ᐃᓄᐃᓂᐄᐄᓄᐃᖅ ᐅᓂᔨᓂ ᑎᑎᐅᑎᐊᑐ

ᐅᓂᐊᓂᐄᐄᓄᐃᖅ ᐅᓂᔨᓂ ᑎᑎᐅᑎᐊᑐ

ᐅᓂᐊᓂᐄᐄᓄᐃᖅ ᐅᓂᔨᓂ ᑎᑎᐅᑎᐊ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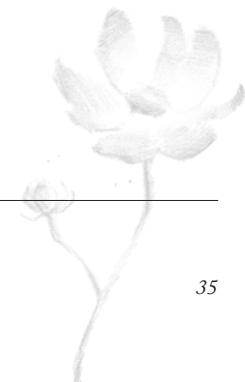
ᐃᓄᐃ

자연

세상에서 가장
또렷이 눈에 띄고
바위에 피어나며
방벽(防壁)에 살고
향기는 없을지도 모르나
빛으로 일렁이는
아침 해처럼
그 색채 극히 매력적이고
심지어 돌 틈에서도
매력적으로 피어나는
나는 정말 쾌활한 꽃—세렘푸 [1]

나는 의무와 책무를 깨닫는다네
돌을 부수면서,
생명의 뿌리를 뻗어
메마른 바위와 하얗게 센 나무를 꾸미면서,
열기 속에 기뻐하며, 피어나 빛나며
압력도 껴안는

딱한 처지에 있는



1 세렘푸(Seremphu): 키란티-코인츠 토착어로 난초를 뜻함.

나는 세렘푸,
아름다움이란 보는 이의 눈에 달려 있으니,
바위의 정점에 아름답게 장식된 채
고통조차 느끼지 않고
슬픔으로 가득한 산속에서도 기쁘게 웃고 있네.



ꓶꓰꓢ꓀ ꓓꓱꓶꓱꓐ (Liku Debla)

ꓐꓠ ꓓꓵꓢꓠꓐꓓꓵꓢꓱꓶꓠ ꓵꓵꓶꓢꓐꓵꓵꓶꓢꓐ ꓱꓟ ꓶꓰꓢ꓀ .

ꓢꓐ ꓶꓵꓢꓶꓵꓢ ꓢꓐꓠꓰꓠ ꓟꓵ
ꓢꓐ ꓢ꓀ꓐꓐꓢ꓀ ꓐ ꓵ꓀ꓟꓱ꓀ꓵ꓀ꓢꓱ
ꓢꓐ ꓕꓐꓱꓕꓱꓐꓱ ꓢ꓀ꓐꓐꓢ꓀ꓢꓱ ꓐ ꓠꓐꓶꓕꓠ ꓐꓐꓢ꓀
ꓐꓠ ꓓꓠꓰ ꓵꓵꓟꓱ ꓶꓱ: ꓕꓐ: ꓠꓐꓕꓢꓢ꓀ ꓠꓰꓢꓶꓵꓵꓟꓱ ꓠꓐꓵꓵꓟꓢ꓀
ꓐꓠꓰꓶ ꓟ ꓟꓵ꓀:꓀ꓠꓠ ꓰꓶ:ꓱꓶꓠ ꓵꓵꓶꓱꓢꓢꓐ ꓵꓟꓶꓱ ꓟꓐ ꓶꓰꓢ꓀,

ꓵꓰꓢ꓀ꓟ ꓟꓶꓕꓢꓐ:꓀ꓱ ꓕꓶ ꓶꓰꓢ꓀ꓟ ꓀ꓐ:ꓵꓐ
ꓞꓞ:ꓐꓐꓶ ꓶꓶꓐꓰ꓀ꓶ ꓠꓐ꓀ꓰꓢꓶꓐꓐꓶ ꓕꓟꓵꓐ
ꓵꓟꓵꓢꓶ ꓶꓠꓶ ꓶꓶꓐꓐꓐꓶ ꓵꓐꓶꓢ꓀ꓐꓐꓶ ꓕꓟꓵꓐ
ꓕꓵꓢꓶ ꓶꓠꓶ ꓶꓶꓐꓐꓐꓶ ꓵꓐꓶꓢ꓀ꓐꓐꓶ ꓕꓟꓵꓐ
ꓵꓟ

강의 특성

강은 자신만의 속도로 흐른다
깊은 사랑에 대한 욕망도
젊음의 광기에 대한 욕망도 없이.
갈증을 해소하는 리비도의 돌진에 열광하지도 않고
늘 깨끗하고 고요하네
강은 자신만의 템포로 흐르고 있다.

하지만
녹아가는 눔부르[2]가
고요한 강을 엉망으로 뒤집어
멋지게 나아가던 물결을
사방에 흩어지게 하고
아무 이유 없이 강물을 흙탕물로 만들어
강의 명성을 더럽힌다.
불성실한 눔부르는
우뚝 선 채
모두를 겁에 질리게 하고
우쭐대며 그들의 기쁨 약탈한다.

2 눔부르(Numbur): 에베레스트산의 마하랑구르산맥에 있는 설산 중 하나로, 네팔 동쪽에 있는 키란티-코인츠(수누와르) 토착민의 원래 영토 중 하나.

눔부르의 어리석음은
마치 용이 먹는 음식이
용 자신을 돌보다 더 강하게 만들 듯
눔부르의 도움을 받아
공동으로 결정을 내려
생명의 진수를 짜내고
모든 힘을 뽑아내면서
자신만의 힘으로 돌돌 말려 내려간다
강은 자신만의 재빠름으로 흐른다.



응제리 왕가리
Njeri Wangarĩ



케냐 시인

응제리 왕가리는 저명한 케냐 시인이자 작가, 구어 예술가(spoken word artist), 창작자이며 그의 작품과 관심사는 아프리카의 뉴미디어, 예술, 문화, 기술의 교차점에 위치한다. 시인으로서 15년에 걸쳐 다방면의 풍부한 경력을 쌓아 왔으며, 출간서로는 『지뢰와 마음밭(mines&mind Fields)』과 영어, 스와힐리어, 응제리의 모어 기쿠유어(Gĩkũyũ)로 쓴 시선집 『나의 구술 문학(My Spoken Words)』이 있다. 응제리의 글은 정체성과 사회 경제, 문화, 언어와 역사 등의 주제를 탐구한다. 응제리는 아프리카 대륙의 여러 언어에 열정을 갖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아프리카인에 관한 일반적인 편견을 무너뜨리는 이야기의 힘을 믿는다. 응제리는 다양한 지역적, 세계적 출판물에 작품을 실은 바 있으며, 4개 대륙의 여러 무대 위에 올라 공연해 왔다.



Wendo nĩ ihũa

Mũthenya wa mbere
ta wone ũtumĩirie ũkengu
ta riũa rĩ nyunjurĩ wa matu,
tũmĩtheko gũtumĩria
tũmathangũ kũhitha ũthaka,
wendo nĩ ihũa

Mũthenya wa keeri
Ũcio wendo ũgicema
ta mũkungi na mũcemi.
Ndũngĩanĩrĩra ũgĩũka
Ũcio wendo ũgĩkunũka ta ikunũ
wendo nĩ ihũa

Mũthenya wa gatatũ
Kũringũka, gũtambũrũka, gũkeenga
Ngogoyo ĩĩtaga njũkĩ kuuma ng'ongo na ng'ongo
Kĩĩrorerwa gĩtũmaga mũtũrĩre ũgĩe riiri ni marangi
Maica magacama ta maya mekĩrĩtwo cukari
ngoro ĩkaihũrwo nĩ ciĩhuruta
wendo nĩ ihũa

Mũthenya wa kana

Kũrĩrĩmbũka rĩrĩ rĩrĩ, dagĩka ĩno
Ĩrĩa ĩngĩ nĩ kũhora werekeire kũhora
Wendo yũcio ũtambũrũkirie mathangũ moothe
Weonania marangi moothe
Ũtegwĩtigĩra kana gũconoka
Weitũrũra woothe wehena wothe

Mũthenya wa gatano

Ũcio ũkĩhoha
mwaki wa njĩbĩ ũkĩhwererekera
Ũcio mũnyanya agĩtwarĩra ũngĩ mahua



사랑은 한 송이 꽃

첫째 날

그것이 자신의 희미한 빛 숨기는 걸 보네
구름 뒤로 숨어버리는 태양처럼
닫힌 입술 너머에서 그것의 웃음소리 새어 나오네
그것이 이파리로 자신의 아름다움 감추고 있네
사랑은 한 송이 꽃

둘째 날

저기 사랑이 까꿍 놀이를 하고 있네
사랑은 고양이
당신은 쥐
조용히 살금살금 다가오다가
사랑이 까꿍! 피어나네, 마치 버섯처럼
사랑은 한 송이 꽃

셋째 날

사랑이 고개를 드네, 피어오르네, 활짝 만개하네
달콤한 꿀은 골짜기와 계곡에서
벌들을 불러들이고
넋 놓고 바라보게 하는 저 아름다움은
정말이지 삶을 알록달록하게 만들어 줘

펄럭이는 나비들로 마음속 가득 채우며
하루하루를 달콤하게 하는
사랑은 한 송이 꽃

넷째 날
이제 그것이 불꽃처럼 환히 타오르는 걸 보네
저기 사랑이 가네, 이파리 모두 흩뿌리며
자신의 색채를 모두 내보이며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모든 눈물을 방울방울 쏟아 내네

다섯째 날
그것이 시드는 걸 보네
장작이 없어 더는 타오를 수 없는 연약한 불꽃
저기 연인이 가네
또 다른 누군가에게 꽃을 바치며
사랑은 한 송이 꽃



Gĩkũyũ to kũaria tu

Kiugo kĩa mbere kĩrĩa ndatamũkire
-Tata
Ciugo cia mbere kũigua ndĩ nda ya maitũ
-kaana gakwa
Rũthiomi rwa maitũ mũjiari nĩruo ma yakwa ya mbere
Rũthiomi rwa maitũ Wangarĩ nĩruo rwaheire ũũgĩ
Rũthiomi rwa maitũ mũnderi nĩruo ndamenyire naruo
Wendo
ũgwati
ũrũmbũiya
inegene

nyĩmbo ona nginya
ũhinga

Mũgambo wa maitũ
O kuma rĩrĩa ndaciarirwo
Nĩguo watuĩkire kĩmũrĩ gĩakwa mũtũrĩreinĩ
Ũkĩhe maitho ndikanahĩngwo nĩ thangari
Ũkĩhe mwĩhoko ndikanae gweterera mũũki

Ũnyonagia njĩra na mwerekero ndikahane mũhũgũi
Ũheyaga hinya wa kwĩrũgamia digatuĩke gĩkwa
Ũnjĩraga bata wakwa ndikanage kwĩrora ndĩyaage

Rũthiomi rwitũ Agĩkũyũ to rwa gũthioma
Nĩ gĩchinga twagwatĩirio nĩ Gikũyũ na Mũmbi
Nĩ ũũgĩ twagaĩirwo wa meciria
Tũtikanaheane tombo witũ
Tũtikanakuo hakiri
Tũtikanariganĩrwo nĩ ma itũ
Tũtikanatiganĩriĩ ũndũire witũ

Nĩ tondũ, tũtirĩ atingiaru



기쿠유는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네

내가 난생처음 발음한 단어는
-타타(이모)
내가 어머니의 배 속에서 처음 들은 단어는
-아가야
내 어머니의 말이 내 최초의 진리
내 어머니, 왕가리가 처음으로 한 말은 내게 지혜를 가르쳐 주었네
내 어머니, 내 수호자의 말이 내게 가르쳐 주었네
사랑
위험
보살핌
소음
노래 그리고
위선을

어머니의 목소리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내 인생의 타오르는 불꽃이었네

그것은 내게 눈빛을 주었네
내가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은 내게 희망을 주었네

내가 절대 구세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도록

그것은 내게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 주네
내가 절대 헤매지 않도록

그것은 내게 홀로 일어설 힘을 주네
내가 절대 참마 같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그것은 내게 나의 가치를 말해 주네
내가 절대 나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의 언어는 우리 아기쿠유(Agikuyu) 민족에게
그저 말의 수단이 아니라네
그것은 우리의 최초의 부모인 기쿠유(Gikũyũ)와 뭄비(Mũmbi)께서
우리에게 주신 타오르는 불꽃
그것은 그들께서 우리의 정신과 약혼시킨 지혜라네
우리가 절대 이성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절대 우리의 의식이
또다시 식민화되는 걸 용납하지 않도록
우리가 절대 우리의 진리를 망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절대 우리의 문화를 저버리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무력한 민족이 아니기에

Ũrĩ Waigua

Ũrĩ waigua nyoni cikĩina
Cigĩkũya, cikĩaria na cikĩinanĩra tũrwĩmbo

Ũrĩ waigua thonjo ikĩinĩra mũtĩ nĩguo
ũrekie mathangũ
namo matunda niguo meeruhe
cirĩe?

Ũrĩ waigua tũmĩgambo

twambũrũrũkagia ngoro
ta tũu?

Ũri waigua kĩhuruta gĩkĩũmbũka
marangi mathaguinĩ,
kaheho na riiri rĩerainĩ

Ũri waigua thayũ ta Ũcio
gĩgĩtamba guokoinĩ,

ũrĩ waigua wororo
ta ũcio?

Ũri waigua kĩgogo gĩkĩgamba,
ta mũteti agĩteta.
Kĩna kora njerũ ngingo,

na nguo njirũ ta nduma,

ũri waigua inegene
ta rĩu?



당신은 들어 본 적 있나요

당신은 들어 본 적 있나요
새들의 노랫소리를
새들이 독창을 이어 나가는 소리를
새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새들이 서로 지저귀는 소리를

당신은 벌새가 나무에게
노래하는 소리를 들어 본 적 있나요
나무에게 잎사귀를 떨구라며
나무에게 성숙해지라며
노래하는 소리를 들어 본 적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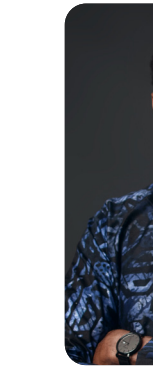
당신은 나비가 여러 빛깔 띤 날개를
펄럭이는 소리를 들어 본 적 있나요
살며시 불어오며 속삭이는 바람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그런 고요함이 당신 손에 내려앉는 소리를
들어 본 적 있나요
당신은 그런 부드러움 느껴 본 적 있나요

당신은 까마귀가 깍깍거리는 소릴 들어 본 적 있나요

밤처럼 어두운 새까만 겉옷 입은
화이트칼라 정치인이
정치 공작을 하는 소리처럼
당신은 그런 시끄러운 소릴 들어 본 적 있나요



콜라 투보순
Kọ́lá Túbọ̀sún



나이지리아 시인

콜라 투보순은 나이지리아의 작가, 편집자, 언어학자이며, 현재 잡지 《올롱고 아프리카(Olongo Africa)》 편집장을 맡고 있다. 『마음으로 가는 에드워즈빌(Edwardsville by Heart)』(2018)과 『어린 시절(Ìgbà Èwe)』(2021), 두 권의 시집을 냈다. 2009년 풀브라이트 장학 제도의 지원을 받았으며, 최근인 2019년에는 런던의 대영도서관에서 쉐브닝 장학 제도의 자원을 받아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지난 10년간 투보순은 모어인 요루바어(Yorùbá tongue)를 다시금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여 요루바어 문학 창작, 사전 편찬, 언어 인식 개선, 번역 작업 등을 해 왔다. 투보순은 이런 인식 촉구 활동으로 2016년 프레미오 오스타나(Premio Ostana)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5년에는 최초로 요루바 이름을 모은 멀티미디어 사전 사이트 요루바네임닷컴(YorubaName.com)을 공개했다. 현재는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라고스에 산다.



Láti Inú Òkùnkùn, Wà Lẹ́gbẹ̀ẹ́ Mi.

Nígbà mìíràn, mo jókòó lẹ́gbẹ̀ẹ́ ẹ nínú òkùnkùn
Bóo ṣe tẹ̀ síwájú súnmọ́ oorun,
Ibùsùn rẹ bí ọkọ̀ tó ń r'òkun
Lórí Serpentine.

Pẹ̀lú ìkọbiarasí àwọn iṣẹ́ mìíràn (ilé dídọ̀tí,
Ọ̀rọ̀ tí aà tîì kọ), síbẹ̀ mo fẹ́ràn dídúró náà
Nígbà tí gbogbo nǹkan bá dákẹ́, ìwọ gan,
Kódà àìlèmáradúró mi.

Ìkùnjáde láti inú ẹ̀rọ olóbìrípo ẹ
Tó yẹ kó mú afẹ́fẹ́ mọ́
Lọ́wọ́ èso òdòdó, jíju, àti eruku,
Fi ìdákẹ́jẹ́ẹ́ nìkan síléẹ̀ lọ́nà àìmọ́.

Nífipamọ́, iná kékeré
Lẹ́gbẹ̀ẹ́ aago tàn sí ìlàjì yàrá ẹ
Ní àwọ ewé tí kò mọ́, tó sì dẹ́rùbani,
Ìtànsán àlá burúkú.

Ṣùgbọ́n ilẹ̀ ọ̀gẹ́rẹ́ mí síta

Sórí mílíọ́nú ìrọ́rí è, àti ìṣẹ́pẹ́ iná.
Àwọn igi ń pa ojú ọ̀run wọn rẹ́
Títí tí ọ̀gànjọ́ òru fi tún ń dùn padà. Iwọ rèé

Òdòdó igi, ewé lílu,
O ń mí jẹ̀jẹ́, o ń mì bíi pé ìjì
Ń gbé gbogbo etí àlá rẹ sókè ni,
O sì sùn lọ.



어둠을 지나 그대는 내 곁으로

때로 나는 어둠 속에서 네 옆에 앉는다
네가 잠을 향해 멀어져 가는 동안,
너의 침대는 구불구불한 뱀 같은 강 따라
바다로 향해 가는 보트.

다른 일들로 마음 어지러워도(하지 않은 집안일,
쓰지 않은 글), 나는 그 기다림이 좋다
모든 것들이, 심지어 너도,
심지어 나의 초조함조차도 조용해지는 그때.

너의 원통형 기계가 윙 하고 돌아가는 소리는
공기 중의 꽃가루, 곰팡이, 먼지를
정화해 줘야 하지만
그럼에도 정적은 불순하게 남는다.

숨어 있는, 문자반 옆의 빛이
음모를 꾸미듯 네 방의 절반을
모호하게 적신다,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녹색,
악몽의 빛.

하지만 대지의 여인은

자신의 무수히 많은 베개, 불의 완두콩을 향해
호흡한다. 나무는 지역의 대기를 씻어낸다
자정이 다시 달콤해질 때까지. 그리고 너,

나무의 꽃, 다공성 잎은
가볍게 숨 쉰다, 마치 바람이 네 꿈의 모든 가장자리를
들어 올리기라도 하는 양 살짝 흔들리며,
그러고는 잠이 든다.



Ìtẹ́tísí

Ọ̀rọ̀ l'etí mi, ẹnìkan àìrí
Kò tîì d'ènìyàn, ṣùgbọ́n ní ìdákẹ́jẹ́
Ó ń mì nínú mi;

Kò tîì l'órúkọ, ṣíbẹ̀
Mo ń kọ́ ibùgbé fún-un láti inú ọ̀rọ̀ sísọ.

Díẹ̀ nínú ilé ayé ló dá dúró
Yàtọ̀ fún oun tí a sọ síta, ṣùgbọ́n díẹ̀ á dúró
Bí a bá tẹ̀síwájú láti máa sọ̀rọ̀; ọ̀rọ̀ nìkan
Ló leè tún àwọn ọgbà ilé ayé dá.

Kìí s'òdòdó róòsì fúnra ẹ̀,
Ṣùgbọ́n Ilé Ìwé Alé tí a ṣètò ẹ̀ s'ẹ́gbẹ́ ẹ̀
Tó ń jiyàn, tó ń yìn, èyí tí a tún rántí báyìí.

Òdòdó róòsì lè dá nìkan gbin èso ẹ̀
Ṣùgbọ́n àwọn akéwì nílò olùwádìí iṣẹ́ wọn
Àwọn ìyá sì nílò èdè wọn fún ibi ìtẹ́mọ́sí.

Ọmọ mi ọkùnrin sì wà l'èso
Tó ń gùn láàárín ìdákẹ́jẹ́ àwọn òdòdó
Àti ìtakùrọ̀sọ tí àwọn òbí ẹ̀ ń fi fún-un,
Ọ̀rọ̀ ọlọgbọ́n àti t'òmùgọ̀, láti tàn-án jáde.

듣기

내 귀에 들리는 단어들, 여전히 보이지 않는 누군가
아직 발육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하지만 조용히
내 몸속에서 움직인다.

아직 이름이 생긴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나는
단어들로 그 아이의 출생지를 엮어 준다.

세상의 일부는 지속된다
우리가 하는 말과는 별개로, 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우리가 계속 대화를 해야지만 남을 것이다, 오직 말하기만이
세상의 정원을 재창조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장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옆에 모여 논쟁하고 찬양한 밤의 학파(School of Night)다.

장미는 혼자서도 씨를
뿌릴 수 있다, 하지만 시인들은 청중을 필요로 하고
어머니들은 요람을 위해 그들만의 언어를 필요로 한다.

나의 아들은 여전히 자기 줄기에 매달려
꽃들의 침묵과, 그의 부모들이 들려주는 대화,
그에게서 말을 이끌어내기 위한
현명하고 어리석은 이야기 사이를 오간다.



Ìwárí Òjò

Láìwọ̀bàtà, láì borí
Àfi fún àwọn irun dúdú mirinmirin yẹn
Ọmọdé jòjòló yìí dìde níṣeré lórí koríko oṣù kẹrin.

Òjò bẹ̀rẹ̀ lójijì, díẹ̀díẹ̀,
Nítorínáà, níbẹ̀rẹ̀, kò ríi rárá
Ìgbà tó yá, ó fọwọ́kàán

Irun ẹ̀, láti ríi pé wọ́n tutu, wọ́n sì ń tutù síi.
Fọwọ́kan ilẹ̀, ó rí nnkan tuntun
Tó yí gbogbo nǹkan padà.

Ó wòkè láti mọ ibi tó ti wá
Ó sì rí ewé àti atẹ́gùn nìkan,
Ṣùgbọ́n ó tẹ̀síwájú láti máa wòkè nítorípé

—Ojú ayé tàbí àlá—
Ó dùn mọ́ọ nínú láti wà
Ní ìbomirin láti ọwọ́ òjò atura.

비의 발견

맨발, 맨머리
그러나 풍성한 검은 곱슬머리를 한 아기가
4월의 풀밭에 서서 놀고 있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가볍게,
그래서 처음에 아기는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다가 아기는

자신의 곱슬머리를 만지고는 그게 축축이 젖어 있다는 걸 깨닫는다.
땅을 만진다, 뭔가 새로운 것이
모든 걸 바꿔 놓았다는 걸 발견한다.

이유를 알기 위해 위를 올려다보지만
그저 이파리와 허공만 보일 뿐,
하지만 계속 올려다본다,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든 꿈이든—
따스한 비에 젖는 것만으로도
아기는 즐거우니까.



강 덕 환
Kang Dukhwan



대한민국 시인

강덕환은 1961년 제주 출생으로, 『생말타기』, 『그해 겨울은 춥기도 하였네』 등의 시집을 출간하였다. 공저 『제주 4·3 유적지 기행 -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무덤에서 살아나온 4·3 수형자들』, 『4·3 문학지도 Ⅰ.Ⅱ』 등의 작품을 썼으며, 현재 제주어로 시 쓰기를 계속하면서 제주작가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우화(寓話)

굳작 ᄒᆞ게 크는 낭은
인칙 비어 가분댄 허연
오글랑 대글랑
뒈와지멍 크당 보난
뵌 좋은 낭이랜
오꼿 옴파 가 부러라게

우화(寓話)

곧게 자라는 나무는
일찍 베어 간다고 해서
오글랑 대글랑(이리저리 꼬이는 모습)
비틀리며 크다가 보니
보기 좋은 나무라고
후딱 파 가 버리더라고



오몽

입바위에 아진 푸리
다울려졈고랜
무뚱도 거슨
넹겨졈고랜

ᄀᆞ진 질 대껴부러뒁
올레 베깯더레
발꼽데기 으쌍으쌍
나상 놉드는 서늉광

드르쏭 내불라
해 볼래기 어신게

움직임

입술에 앉은 파리
쫓을 수 있다고
문턱도 거뜬
넘을 수 있다고

곧은 길 던져두고
골목 밖으로
발자국 움쩍움쩍
나서서 날뛰는 모습이라니

던져두고 내버려라
해 볼 도리가 없네



게미융헌 싀상

몬 모지려 불곡
줻 게 어서 노난
직산헐 디도 이심이랑 말앙

터진 창곰으론
석석헌 ᄇᆞ름만
솽솽 들이치곡

벌 직은 펀펀헌디
무사 식겐 재게 옴광
가살 질은 먼먼헌디
무사 짐은 벤벤험광

경해도
죽굼살굼
한시반시 어시
기염시난
게미융허게
붉아 와라게, 싀상이

희미한 세상

모두 무질러 버리고
가진 게 없어 버리니까
기댈 곳도 있지 못하고

터진 창틈으론
차가운 바람만
숭숭 들이치고

벌이는 변변치 못한데
왜 제사는 빨리 오는지
가야 할 길은 멀고 먼데
왜 짐은 무겁고 무거운지

그래도
죽기 살기로
한시반시 없이
기고 있으니까
희미하게
밝아 오더라, 세상이



송 시 연
Song Siyeon



대한민국 시인

2007년에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현재 국제 PEN 망명북한작가센터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기문화재단 수기공모전, 강서경찰서 수기공모전 등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북한작가작품집』에 「이지러진 달」, 「칠보산」, 「순이」 등의 단편소설을 실었다. 《월간북한》에 장편소설 「빈들에 부는 바람」을 연재하였다.



쇄지고기

정지간에 엄마가 들어선다.
가매에 물을 붓고
부스깨로 내려 우굴떼리고 앉아
비지깨로 불을 일구어
아궁이 마른 강내 이파리에 붙인다.
불이 활활 타오르자
앞 가매에 이팝을 짓고
옆 가매엔 지지미도 지지고
뒷 가매에 도티죽 쓸 준비도 한다.

오늘은 나그네의 생일이다.
엄마는 어렵게 구한 쇄지고기도
다른 가매에 앉힌다.
어제 슬기에 실어 온 잡초를
부스깨에 잔뜩 집어넣자
가매가 쎄게 끓는다.
엄마의 이맨대기에 땀이 돋는다.

상을 차리자 막내가
엄마, 나 쇄지고기 고부래 주오.
엄마는 이팝에 쇄지고기를 고부래 담아

막내에게 준다.
-막내야, 쇄지고기가 찔겨서
마이 먹기 힘들 텐데,
아비가 걱정스런 눈으로 쳐다본다.
엄마도 같은 얼굴이다.
-일없소, 다 먹을 거요!
막내의 도투스런 답이다.



소고기

부엌에 엄마가 들어선다.
솥에 물을 붓고
아궁이로 내려 쭈그리고 앉아
성냥으로 불을 일구어
아궁이안 , 마른 옥수수 잎에 붙인다.
불이 활활 타오르자
앞 솥에 이밥을 짓고
옆 솥엔 전도 부치고
뒤 솥에 돼지죽 쑬 준비도 한다.

오늘은 남편의 생일이다.
엄마는 어렵게 구한 소고기도
다른 솥에 안친다.
어제 수레에 실어 온 잡초를
아궁이에 잔뜩 집어넣자
솥이 세게 끓는다.
엄마의 이마에 땀이 돋는다.

상을 차리자 막내가
엄마, 나 소고기 두 배로 주오.
엄마는 이밥에 소고기를 배로 담아
막내에게 준다.

-막내야 소고기가 질겨서
많이 먹기 힘들 텐데.
아비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본다.
엄마도 같은 얼굴이다.
-괜찮소, 다 먹을 거요!
막내의 퉁명스러운 답이다.



가마치

엄매가 가마치를 긁는다
고소한 냄새가
가난한 하모니카주택마을
가득 퍼진다.
그래도 영희네는
밥술이라도 먹으니 가마치가 있다.
영희는 예술체조 선수다
운동하는 딸이 배곯을까
엄매는 늘 가마치라도 챙겨준다.

그리고 더러는 물에 불려
끼니로 때우기도 하고
금방 긁어낸 것을
아득 아득 씹어 먹기도 한다.

고방에는 알뜰한 엄매가
대야에 담아놓은 말린 가마치가
수태 담겨 있다.
엄매가 버치에 가매치 조금과
다두배추, 도마도를 담아주며
이른다.

-영희야, 저 앞집 땅땅버버리네
이거 좀 가져다주고 오너라.
애들이 불쌍해서리.
-야, 엄매 우티 좀 입고 갔다 오겠소.
하모니카주택의 밤이
빈곤과 더불어 깊어간다.



누룽지

엄마가 누룽지를 긁는다.
고소한 냄새가
가난한 연립주택마을
가득 퍼진다.
그래도 영희네는
밥술이라도 먹으니 누룽지가 있다.
영희는 리듬체조 선수다.
운동하는 딸이 배곯을까
엄마는 늘 누룽지라도 챙겨준다.

그리고 더러는 물에 불려
끼니로 때우기도 하고
금방 긁어낸 것을
아득 아득 씹어 먹기도 한다.

고방에는 알뜰한 엄마가
큰 그릇에 담아놓은 말린 누룽지가
가득 담겨 있다.
엄마가 그릇에 누룽지 조금과
양배추, 토마토를 담아주며
이른다.

-영희야, 저 앞집 주워 먹는 아이
이거 좀 가져다주고 오너라.
애들이 불쌍해서.
-야, 엄마 옷 좀 입고 갔다 오겠소.
연립주택의 밤이
빈곤과 더불어 깊어간다.



김치

노친의 김치는 와누르 맛있다.
나박나박 썬 무끼김치는 나박김치
배추며 무끼며 마구 썰어서 버무린 건
써레기 김치.
깍뚝 깍뚝 네모꼴로 썬 김치는
깍두기
무끼를 채칼로 쳐내 낙지를 넣어 버무린 건
채지김치.
양념 없이 통무끼를
그냥 소금물에 담궈 숙성시킨 건 통지.

가난한 사람들이
시라지만 절여서 놓은 건 김치 같은
김치 아닌 시라지 절금
파이를 소금에 절여
무쳐 먹는 건 파이김치
노데기의 갖가지 김치는
식구들을 메기는 반년 식량이다.

김치

할머니의 김치는 완전 맛있다.
나박나박 썬 김치는 나박김치
배추며 무며 마구 썰어서 버무린 건
잔 밥 김치.
깍뚝 깍뚝 사각으로 썬 김치는
깍두기
무를 채칼로 쳐 오징어를 넣어 버무린 건
무채김치.
양념 없이 통무우를
그냥 소금물에 담가 숙성시킨 건 동치미.

가난한 사람들이
시래기만 절여서 놓은 건 김치 같은
김치 아닌 시래기 절임
파를 소금에 절여
무쳐 먹는 건 파김치
할머니의 갖가지 김치는
식구들을 먹이는 반년 식량이다.



오펠리아 세페다
Ofelia Zepeda



미국 시인

오펠리아 세페다 박사는 미국 아리조나주 남부에 위치한 토호노 오오담 국가(Tohono O'odham Nation)의 일원이다. 아리조나 대학교 언어학과 교수이며, 미국 인디언 언어의 교육, 유지, 회복에 관한 연구로 맥아더 펠로십에 선정됐다. 토착어 교육자 및 연구자 훈련 기관인 미국 인디언 언어 개발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세페다 박사는 모어인 오오담어와 영어로 시를 쓴다. 세 권의 시집 『바다의 힘: 사막에서 온 시(Ocean Power: Poems from the Desert)』, 『땅의 움직임(Jewed I-hoi)』, 『구름이 생겨나는 곳(Where Clouds are Formed)』을 냈으며, 미국 원주민 작품집 『집과 같은 장소(Home Places)』의 공동 편저자다. 세페다의 시와 에세이는 에릭 메그래인과 크리스토퍼 코키노스가 편집한 『소노란 사막: 문학적 현장 지침서(Sonoran Desert: A literary Field Guide)』와 미국 계관시인 조이 하르조가 편집한 『세상의 빛이 가라앉자 우리 노래가 들려왔다(When the Light of The World was Subdued, Our Songs Came Through)』를 포함해 여러 선집과 간행물에 실렸다. 2018년에는 판화가 피에르 카욜이 삽화를 맡은 한정판 프랑스어 번역 시집 『우리 세상 바로잡기(Aligning our World)』를 출간했으며, 2019년 『구름이 생겨나는 곳: 사진 에세이』 프로젝트에 사진작가 가레스 스미트, 연구자 마틴 지카리와 함께 시인으로서 협업했다. 투손 미술관의 〈서구의 숭고미(A Western Sublime)〉 전시에 시로 참여했다. 오펠리아 세페다의 작품 중 일부는 아리조나 투손과 피닉스 공공 예술 사업에 등장하기도 했다. 세페다 박사는 현재 세계 토착어 10년 국제 특별팀에 참가하고 있다.



D. ’ac ’O’odham

Gan ’at hu ’i ’e-ju: g taṣ
ga ’at hu ’i hihi g cewagĭ’
ṣa’i si s-to:ta
ṣa’i si ge’egḍaj
’ac ’ia daḍhă c ñenda g ju:kĭ

’Ab ’o hihim g cewagĭ
’u’ua ’o g ju:kĭ
ḍ ’o ’Kaij Cukalig Maṣad’
An ’ac u:gk ha’icu ñeid c ñenda g ju:kĭ

’Ab ’o hihim g cewagĭ
s-ap ’o u:wĭ g ju:kĭ
s-hewog ’o g hewel
s-ap ’ac tahadag c ’ia ñenda g ju:kĭ

’Ab ’o hihim g cewagĭ
’an ’at ’aṣ bi:bij g cewagĭ
pi ’atkĭ o ṣa’i ju:
t ’iatokĭ ’at g cewagĭ
ḍ ’ac ’O’odham c ’ia daḍhă c ñenda g ju:kĭ

우리는 파파고족(族)이다

해가 저쪽으로 약간 자리를 옮겨 갔다.
이제 구름이 몰려온다.
정말 아주 하얗고
정말 아주 커다란 구름이 몰려오는 동안,
우리는 여기 앉아 비를 기다린다.

이제 구름이 몰려온다.
구름은 비를 머금고 있다.
지금은 '씨가 검어지는 달'이고,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비를 기다린다.

이제 구름이 몰려온다.
비에서는 좋은 냄새가 나.
시원한 미풍이 상쾌하게 불어오다.
비를 기다리며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

이제 구름이 몰려온다.
하지만 구름은 그냥 지나가 버렸다.
비는 오지 않을 것이다.
구름은 우리를 속였다.
우리는 파파고족, 우리는 여기 앉아 비를 기다리고 있다.

Ñeñe'i Ha-ṣa:gid
(from Where Clouds are Formed)

Ha-ka: 'ac g ñeñei'i mo 'am kaidaghim
'Am kaidaghim taṣ huḍnig wui.
'Am kaidaghim si'alig ta:gio.
'Am kaidaghim ju:pin tagio.
'Am kaidaghim wakolim tagio.
'Am 'ac ha'icug 'id ṣa:gid.
mo 'am kaidaghim
S-ap ta:hadag 'o g t-i:bdag.
S-ape 'o g t-cegĭtodag.
S-ape 'o g t-jeweḍga.
S-ke:kaj 'o, ñia 'an g 'i- ñeid.
S-ju:jpig 'o, ñia 'an g 'i- ñeid.

Ka: 'ac g ka:cim ṣu:dagi t-miabĭ 'at.
Ka: 'ac g ge'e jegos t-miabĭ 'at.
Ka: 'ac g s-ke:g hewel t-miabĭ 'at.
Ka: 'ac g s-ke:g nene'i t-miabĭ 'at.
Ka: 'ac g s-ke:g ñeñe'i t-ai 'at.

노래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를 듣는다.
노래는 지는 해를 향해 울려 퍼진다.
노래는 떠오르는 해를 향해 울려 퍼진다.
노래는 북쪽을 향해 울려 퍼진다.
노래는 남쪽을 향해 울려 퍼진다.
우리는 노래의 한가운데에 있다.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다.
우리의 정신은 훌륭하다.
우리의 땅은 훌륭하다.
그 땅은 모두 아름답다, 한번 보라.
주위에 온통 보슬비가 내리고 있다, 한번 보라.
우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대양의 소리를 듣는다.
그 소리가 우리 가까이로 왔다.
우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바람 소리를 듣는다.
그 소리가 우리 가까이로 왔다.
우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모래 폭풍 소리를 듣는다.
그 소리가 우리 가까이로 왔다.
우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듣는다.
그 소리가 우리 가까이로 왔다.
우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듣는다.
그 소리가 우리에게 도착했다.



S-cegĭto g Ñeñe’i

T-ñi’oki ‘att ’an o ’u’akc o hihi
K ’am da:m ka:cim ’am dada.
Tt ’amai ha-ñei g na:nko ma:s ’u’uwhig.
K ’am si ṣo’igam ta:hadag
’am ha wa g ’e-kuku’im pi ma:c g ’u’uwhig.
Att pi t-nako matt ’am o ’a:
mo has ma:s ’idam o mac has ha-elid.
Natkpi g ’e-ku:ku’im pi cegĭto.
Ñia,’ac ṣo’ighim an hihim c pi ma:c matp wuḍ t-i:mig.

노래를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의 말을 싣고 간다.
우리는 하늘의 세상에 도착한다.
우리는 날아다니는 모든 존재를 본다.
슬픔의 감정이 우리를 압도한다.
이 존재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노랫소리, 휘파람 소리, 구구구, 짹짹거림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들에 공감한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할 말 찾지 못하고
그들에 대한 느낌도 말하지 못한다.
그들의 노랫소리 듣지 못해
우리는 그들이 동족인지도 알지 못한다.



야나 루실라 레마 오타발로
Yana Lucila Lema Otavalo



에콰도르 시인

에콰도르의 영상 제작가, 문화 활동가, 언론인, 시인이다. 키츠와어(Kichwa)와 스페인어(Spanish)의 이중 언어로 창작을 한다. 안데스의 전통적인 신화적·시적 언어와 도시에 거주하는 키츠와인들의 현대적·도시적·일상적 언어를 조화시키려는 시도가 시 세계의 주요한 특징이다. 시집 『나는 비와 함께 정중하게 오노니(Tamyawan Shamukupani)』(2019)를 출판하였고, 『그대 입에 굶주리고(Kampa shimita yarkachini』(2021)로 호르헤 카레라 안드라데 문학상(Jorge Carrera Andrade Prize)을 수상했다. 전 대륙적인 선주민 연대를 위해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KANCHIKRA

mamatapash charinchikmi
taytatapash charirkanchikmi
paykunami ñukanchik umapi sisa yakuta
sumak tullpu sisakunata churarka
alli kawsayta charichun nishpa

paykunami
llullu urpikunapa
millay pumakunapa
may illapapa
kuyllurkunapa shutikunawan shutichirka

ñukanchi shutikunaka
shuk shuk urkukunapi
shuk shuk rumikunapi
shuk shuk pukyukunapi

na chinkarina
shimi kan
nishka nin wawakunaman Otavalo kuraka taytaka

아직 우리는 여기에

우리에게는 어머니가 있었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었네.
우리의 출생을 환영하고자 두 분은
색색들이 경이로운 꽃물을 우리 머리 위에 떨구었지.

우리 이름을 지으셨지.
감미로운 새 이름으로,
사나운 퓨마 이름으로,
가공할 번개 이름으로,
아련한 별 이름으로.

산마다
돌멩이마다
개울마다
우리 이름들이 붙어 있네.

결코 소멸되지
않을 말인
우리 이름들.

오타발로[1] 어르신(tayta)이 아이들에게 그리 말씀하셨다는군.

1 어느 선주민 족장 혹은 지배자의 성(姓). 에콰도르에서 선주민 전통이 가장 강렬하게 계승된 도시 이름이 그에게서 유래했으며, 저자인 야나 레마가 바로 이 지역 출신이다.

ÑUKA PURI

ñukata na allikachinakun
yallikta rikushpa upallakuta

payka na kaymantachu ninakun

kaymanta warmikunaka na shina tyarinchu
kaymanta warmikunaka na shina churakunchu
kaymanta warmikunaka na shina rimanchu
kaymanta warmikunaka na yachaywasiman rinchu
kaymanta warmikunaka na ista karikunata munanchu
kaymanta warmikunaka na nataka ninchu ninakun

ñukakarin yana urkuta
tunirishka ruku wasita yarikupipash
ñukanchik kawsakkuna
ñukanchik wañushkakuna chaykunallata kakpipash
shukmi nishpa rikuwanakun
yallikta rikushpa upallakuta

payka mana kaymantachu ninakun

나의 길

그들은 나의 길이 달갑지 않다.
내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 쑥덕댄다.

"이곳 사람이 아니야."

이곳 여인들은 그렇게 앉지 않아.
이곳 여인들은 그렇게 입지 않아.
이곳 여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이곳 여인들은 학교에 가지 않아.
이곳 여인들은 다른 지역 남정네를 사랑하지 않아.
이곳 여인들은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아.

아무리 내가 검은 산을 그리워해도,
아무리 이제 흙으로 변한 옛 집을 그리워해도,
아무리 우리의 산 자와 우리의 죽은 자들이
다 같은 사람일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낯선 사람인 게야.
내가 지나가는 것을 보며 쑥덕댄다.

"이곳 사람이 아니야."



HAWA PHUYUPI SARA SISA

kankunapa allpa ña na kakunapachu nin
yakutapash ña rantirkanchikmi nin

shinapash allpapi sara pukunkami
phuyumanta yakupash urmamunkami
urku washata kallpankami
mayta alli ayakuna purinakuk pushtuta

sara allpa
sara tanta
sara yaku
hawa phuyupi sara sisa
kari urkukuna washapi sara
warmi urkukuna washapi sara

kanta nishpa harkanakunata churashkanchik
rawrak willka ninatapash hapichishkanchik
ñukanchik kawsay shimitapash

구름 속의 옥수수 꽃

우리의 대지는 이제 우리 것이 아니라고,
그들이 이미 물을 다 사 버렸다고 말들 하지.

하지만 대지에서는 옥수수가 영글 것이고,
구름에서는 물이 솟아날 것이고,
그 물이 산들을 뒤로 하고
만물을 돌보는 정령들이 거주하는 곳들을 흐르리라.

옥수수 대지
옥수수 빵
옥수수 물
구름 속의 옥수수 꽃
산들을 뒤로 한
옥수수 남자와 옥수수 여자.

이 모두를 기리기 위해 우리는 바리케이드를 쳤고,
성스러운 불을 댕겼네.



이 대 흠
Lee Daeheum



대한민국 시인

1967년 전남 장흥에서 태어나 1994년 《창작과 비평》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으로는 『눈물 속에는 고래가 산다』(1997), 『상처가 나를 살린다』(2001), 『물 속의 불』(2007), 『귀가 서럽다』(2010), 『당신은 북천에서 온 사람』(2018) 등이 있으며, 장편소설 『청』(2007), 『열세 살 동학대장 최동린』(2018) 등이 있다. 연구서로는 『시문학파의 문학세계 연구』 (2020), 『시톡1』(2020), 『시톡2』(2020), 『시톡』(2020) 등이 있으며, 산문집 『그리운 사람은 기차를 타고 온다』(2000), 『이름만 이삐면 머한다요』(2007), 『탐진강 추억 한 사발 삼천원』(2016) 등이 있다. 조태일문학상, 이육사시문학상-젊은시인상, 전남문화상 등을 수상하였다.



아름다운 위반

기사 양반! 저짝으로 조깐 돌아서 갑시다
어칳게 그란다요 뻐스가 머 택신지 아요?
아따 늙은이가 물팍이 애링께 그라제
쓰잘데기 읎는 소리 하지 마시오
저번찰에 기사는 돌아가듬마는 ……
그 기사가 미쳤능갑소

노인네가 갈수록 눈이 어둡당께
저번찰에도
내가 모셔다드렸는디

아름다운 위반

기사 양반! 저쪽으로 조금 돌아서 갑시다
어떻게 그런데요 버스가 뭐 택신 줄 아세요?
아니 늙은이가 무릎이 아리니까 그렇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난번의 기사는 돌아가더니만 ……
그 기사가 미쳤나보네요

노인네가 갈수록 눈이 어둡다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모셔다드렸는데



늦가을 들녘

널펑네 양반 돼지 한 마리 팔고 오는 길에

젤 먼저 국밥집 들러 막걸리 두 되 마시고 현찰로 줘불고
밀린 술값까지 탈탈 털어 쥐알려불고
내친 짐에 옆자리에 앉아 있던 종재기골 양반네 막걸리 값까지 개러불고
종묘상 들러 고추 모종 값 갚어불고
지물포에 가서 지난 저슬에 샀던 창호지 값 벡지 값 지와불고
지전머리 단골 점방에 가서 묵은 외상값 죽에불고
빚내서 사기는 뭐 했던 손지년 빗 한나 현찰로 사불고
걸레짝이 다 된 마누래 빤스 브라자에 지폐 몇 장 볼라불라다가
크음 하고 돌아서서 방엣간 떡 값 밀린 것 잉끼레불고
농협에 가서 비료 값 꼴랑지 짤라불고
집이 가불라고 차부에 들렀는디 널펑네 처삼촌을 만나불고 나서는 또
이바지로 과일 조깐 사서 앵게 줄 때게 지갑 열어불고
쐬주 두 벵 사 엄버줌서 괴춤 또 풀어불고
슈퍼에 들러 음료수 두 벵 삼서 조만이돈 털어불고
풍로 바람에 검불 날리대끼 다 까묵어불고
마침내 차표 한 장 딸랑 바까서는
빙골로
빙골로 돌아가는 저 늦가을 들녘

늦가을 들녘

널펑네 양반 돼지 한 마리 팔고 오는 길에

제일 먼저 국밥집 들러 막걸리 두 되 마시고 현찰로 주고
밀린 술값까지 탈탈 털어 제하고
내친 짐에 옆자리에 앉아 있던 종재기골 양반네 막걸리 값까지 계산하고
종묘상 들러 고추 모종 값 갚고
지물포에 가서 지난 겨울에 샀던 창호지 값 벽지 값 지우고
지전머리 단골 가게에 가서 묵은 외상값 죽이고
빚내서 사기는 어려웠던 손주 년 빗 하나 현찰로 사고
걸레짝이 다 된 마누라 팬티 브래지어에 지폐 몇 장 붙이려다가
크음 하고 돌아서서 방앗간 떡 값 밀린 것 뭉그러뜨리고
농협에 가서 비료 값 꼬리 자르고
집이 가려고 터미널에 들렀는데 널펑네 처삼촌을 만나고 나서는 또
이바지로 과일 조금 사서 안겨줄 때 지갑 열고
소주 두 병 사 얹어 주면서 괴춤 또 풀고
슈퍼에 들러 음료수 두 병 사면서 주머닛돈 털고
풍로 바람에 검불 날리듯이 다 까먹고
마침내 차표 한 장 달랑 바꿔서는
빈 몸으로
빈 몸으로 돌아가는 저 늦가을 들녘

오래된 편지

큰형은 싱가포르로 돈 벌러 가고
물레에는 고지서만 쌓였다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신 어머니는
어깨너머로 겨우 한글을 깨쳤지만
혼자서 편지 쓰기에는 무리였다
보일러공인 큰형 덕분에 나는 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고
어머니가 입으로 쓰시는 편지를
양면지에 옮기는 일을 하였는데
맞춤법도 없는 편지는 큰형을 곧잘 울리고

큰 악으야 여그도 이라고 더운디 노무 나라에서 얼매나 땀 흘림시롱 고상허냐? 니 덕분에 아그들 학비 꺽쩡은 읎다마는 이 에미가 니럴 볼 면이 읎따 늑 아부지도 잘 있고 아그들도 잘 있시닝께 암 꺽쩡 하들 말고 몸조리나 잘하그라 저번참 핀지에 내 물팍 아푸냐고 물었는디 내 몸땡이는 암상토 안항께 꺽쩡얼 허들 말어라

그럴 때면 나는
편지에는 계절 인사가 있어야 한다고 우겨댔는데
그러면 어머니는,

속닥새가 우는 걸 봉께 밤이 짚었구나
샐팍에 있는 수국이 허뽁 펴부렀다
이러다가,

그 까튼 거 물라고 쓴다냐
기냥 몸이나 안 아픈지 으짠지 고것이 더 중하제
느그는 성이 짠하도 안하냐?
뙤약벹에서 내 자석이 피땀 흘려 번 돈을
호박씨 까묵대끼 톡톡 끼리고 있짱께 중치가 멕힐락 함마이잉
이참 월급도 다 써불고
느그 성 나오먼 통장이나 한나 줘사 쓸 것인디
에미 에비 있능 것이 도와주지도 못함서
하면서 이내 눈물 글썽이셨는데,

이쯤 되면 나는 어머니가 했던 말을 마음대로 버무려
편지를 썼는데,

큰 악으야 에미다 더운 디서 일하니라고 고상이 징상나게 많지야 여그도 이라고 더운디 니는 오죽하겄냐 근디 우째사 쓰꺼나 니 나오먼 통장 한나 둘라고 애끼고 애낀다마는 이참 월급도 아그들 납부금 내불고 농협 빚 조깐 쥐알려불고 낭께 읎어져부렀단마다 차말로 내가 에미제만 할 말이 읎다 더운 나라에서 피땀 흘리고 이쓸 너를 생각하면 중치가 멕히고 숨이 멕힐락 한다마는 우짜겄냐 벨 도리가 읎

어분다 못짜리할 때부텀 울던 속닥새가 또 운 것을 본께로 밤이 이상 짚었는 모냥이다 니가 작년 가슬에 싱게놓고 간 국화도 이상 커부렀다 깽벤 밭에는 감재랑 콩을 싱겠는디 아까 낮에는 아그들 데꼬 가서 밭을 맸다 날이 징상나게 더와서 아그들은 풀 조깐 매고 나서 뫼욕을 하드라 아그들 뫼욕한 거 보고 이씀서 오매 우리 큰 악으는 더운 디서 엄마나 고상할끄나 생각허닝께 눈물이 나드라 모쪼록 여그는 암상토 안항께 니 몸 한나 건사 잘하기 바란다 펜지를 쓴다고는 쓰제마는 니 낫을 볼 면모기 읎어서 우짜꺼나 못난 에미가 무담시 우리 큰 악으만 고상시키고 있구나 니가 그라고 피땀 흘림서 번 돈을 한나도 모태도 못하고 우짤까 몰르겄다 아그들이 크먼 니 덕을 알랑가는 몰겄다마는

이쯤 쓰고 있노라면 어머니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고, 나는 엄니가 불러준 대로 고대로 써부렀네이 하고는 편지 말미에

큰성 나 대흠인디, 엄니 시방 울고 있소. 큰성 이약만 나오먼 눈물부텀 흘린당께. 모쪼록 몸 성히 잘 지내시고, 나올 때게 샤프펜슬 꼭 잊지 마씨요이잉.

하고 두어 마디 붙이곤 하였는데



오래된 편지

큰형은 싱가포르로 돈 벌러 가고
마루에는 고지서만 쌓였다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신 어머니는
어깨너머로 겨우 한글을 깨쳤지만
혼자서 편지 쓰기에는 무리였다
보일러공인 큰형 덕분에 나는 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고
어머니가 입으로 쓰시는 편지를
양면지에 옮기는 일을 하였는데
맞춤법도 없는 편지는 큰형을 곧잘 울리고

큰 아이야 여기도 이렇게 더운데 남의 나라에서 얼마나 땀 흘리면서 고생하느냐?
네 덕분에 아이들 학비 걱정은 없다만 이 어미가 너를 볼 낯이 없다 네 아버지도
잘 있고 아이들도 잘 있으니까 아무 걱정 하지말고 건강 관리 잘하여라 지난번 편
지에 내 무릎 아프냐고 물었는데 내 몸은 아무렇지도 않으니 걱정을 하지 말아라

그럴 때면 나는
편지에는 계절 인사가 있어야 한다고 우겨댔는데
그러면 어머니는,

소쩍새가 우는 걸 보니 밤이 깊었구나
대문간에 있는 수국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이러다가,

그 까짓 거 뭐하려고 쓴다냐
그냥 몸이나 안 아픈지 어떤지 그것이 더 중요하지
너희는 형이 언짢지도 아니 하냐?
뙤약볕에서 내 자식이 피땀 흘려 번 돈을
호박씨 까먹듯이 톡톡 끊어서 먹고 있으려니 기가 막히려 하는데
이번 월급도 다 써버리고
너희 형 나오면 통장이나 하나 줘야 할 것인데
어미 아비 있는데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하면서 이내 눈물 글썽이셨는데,

이쯤 되면 나는 어머니가 했던 말을 마음대로 버무려
편지를 썼는데,

큰 아이야 엄마다 더운 데서 일하느라고 고생이 매우 많지 여기도 이렇게 더운데 너는 오죽하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네가 나오면 통장 하나 주려고 아끼고 아낀다만 이번 월급도 아이들 납부금 내고 농협 빚 조금 갚고 나니 한 푼도 안 남았다 정말이지 내가 엄마지만 할 말이 없다 더운 나라에서 피땀 흘리고 있을 너를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숨이 막히려 한다만 어쩌겠느냐 별 방법이 없다 못자리 할 때부터 울던 소쩍새가 또 우는 것을 보니 밤이 상당히 깊은 모양이다 네가 작년 가을에 심어놓고 간 국화도 상당히 컸다 강변 밭에는 고구마랑 콩을 심었

는데 아까 낮에는 아이들 데리고 가서 밭을 맸다 날이 너무 더워서 아이들은 풀 조금 매고 나서 물놀이를 하더라 아이들 물놀이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아아 우리 큰 아이는 더운 데서 얼마나 고생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나더라 모쪼록 여기는 아무렇지도 않으니 네 몸 하나 건강하게 잘 지키기 바란다 편지를 쓴다고는 쓰지만 네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서 어찌 할 것이냐 못난 엄마가 괜히 우리 큰 아이만 고생시키고 있구나 네가 그렇게 피땀 흘려서 번 돈을 하나도 모으지 못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아이들이 크면 네 덕을 알는지 모르겠다만

이쯤 쓰고 있노라면 어머니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고, 나는 어머니가 불러준 대로 그대로 썼어요 하고는 편지 말미에

큰형 나 대흠인데, 어머니 시방 울고 있어요. 큰형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부터 흘린다니까요. 모쪼록 몸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나올 때 샤프펜슬 꼭 잊지 마세요.

하고 두어 마디 붙이곤 하였는데



마르조리에 에바스코 페르니아
Marjorie Evasco Pernia



필리핀 시인

모국어 세부아노 비니사야(Binísayâ)어와 영어로 시와 수필을 쓴다. 2010년 동남아시아 작가상(SEAWrite), 2011년 필리핀 국립문화예술위원회 애니 당갈상(Ani ng Dangal) 등을 수상했다. 마닐라 데라살대학교에서 문학 명예교수이자 2019년부터 상주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학문지에 시가 실렸으며, 필리핀어, 비니사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한국어, 일본어, 에스토니아어, 베트남어, 중국어, 칸나다어 등으로 번역됐다.



ORIGAMI

Mibukhad kining pulong, mitigom sa hangin
Pagpatulin sa lupad sa grulya
Amihanan sa akong adlaw, ngadto kanimo.

Gilalang ko kining balak
Gikan sa papel, gipilo-pilo
Ang gilay-on sa atong panahon.

Kining balaka usa ka grulya.
Inig bukhad sa iyang pako,
Ang papel motin-aw ug mahawan.

종이접기

이 단어는 펼쳐진다, 바람을 한껏 끌어모아
태양의 북쪽에 있는 당신에게
학을 더 빨리 날려 보내려고.

나는 종이로 이 시에
형체를 부여한다, 우리의 계절 사이의
거리를 접으며.

이 시는 한 마리의 학이다.
학이 날개를 펼칠 때
종이는 깨끗이 비워지리라.



ANG TIKAROL BA KADTO?

Kini ang paagi sa akong pagpangandoy sa bathala dinhi niining isla
Uban kanimo karong adlawa: sukaranon ug bughaw
Sama sa dagat nga nagpahumok sa atong mga tiil sa asin
Ug nagdala sa buhing balod sa atong mga bàbà,
Nagdula sa mga tunog sa atong ginsaugdang pinulongan.
"Bughaw ang Bathala," miawit ang magbabalak Juan Ramon Jimenez,
Nahubog sa pangandoy, ang iyang buhok, kilay,
Pilok nabughaw daw mga pako sa tikarol.
Kini ang langgam nga mihangop kanato dihang miabot ta
Sa sidlakang likoon niining isla:
Nagtug-an kanato nga ang mahiktin natong utlanan
Mapapas diha sa hangin, motuhop sa bughaw
Sa kaalindangahang kalangitan ug mga bukidnong bulak.
Dinhi sa atong gilingkorang bato nga gitabonan og lumot,
Natagamtaman kog kalit nga migakos kanato ang kabughaw,
Kining bato, isla, nausob nga hangin,
Ang atong gilay-on ug ang panaghiusa sa Kaugalingon
Nga atong gipangandoy. Mikaylap
Sa akong utok ang bughawng kilat nga nagkalayo,
Naghatag sa tubag nga atong gigukod niining tibuok adlaw:
Giawit kini sa mga balod sa dagat; naglupad-lupad dinhi ang tikarol,
Migamot niini kining islaha. Ang pagpangandoy
Sa Bathala bughaw nga matin-aw — ang bolok
Diin manihag-sihag ang atong kalag.

그것은 물총새인가?

이것이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이 섬에서 바라는
신의 모습이다: 기본적이고 푸른 모습,
우리의 발을 소금으로 부드럽게 하고
최초의 말소리로 장난치는 우리의 입으로

살아 있는 물결을 실어다 주는 저 바다처럼.
"신은 푸르다"라고 시인 후안 라몬 히메네스[1] 는 노래했다,
욕망에 취해, 머리카락과 눈썹,
속눈썹을 물총새의 날개처럼 푸르게 물들인 채.

우리가 이 섬의 동쪽 굽이를 돌 때
우리를 맞아 주는 것은 바로 이 새다.
우리 사이의 털끝만큼 좁은 경계는 잠시 공기 중에 머무르다
사라질 뿐이라고, 열대 지방의 하늘과 용담[2] 의 푸른색에

스며들 뿐이라고 말해 주는 것도 바로 이 새.
해초로 뒤덮인 이 바위에 너와 함께 앉아 있다가
나는 갑자기 우리를 껴안는 푸른색을 느낀다,
이 돌을, 이 섬을, 이 변화된 공기를,

1 에스파냐의 시인으로, 1956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였다.
2 종 모양의 파란색 꽃이 피는 야생화의 일종

우리가 그동안 간절히 바랐던 우리의 본모습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느낀다. 타오르는 푸른색이 번쩍
머릿속에 번개처럼 내리친다,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얻으려 애써 온 답을 들려준다:

파도가 그것을 노래하고, 물총새가 그 속을 날아다니고,
이 섬이 그것에 뿌리내리고 있다. 신을 바라는 일은
투명한 푸른색이다—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 주는 색.



Krutsay

Paghimamat

Gikan pa ko's lawod; tibuok gabii ming nangisda kay himatayon man. Mamasin man gyod ming mga mananagat nga daghan ang makuha. Humod pa ning akong purol. Wa' pa ko maka-ilis sa akong sapot takos mosugilon nimo kabahin sa kinabuhi namo ning mga panahona.

Usa lang ko ka yanong mangingisda, sama ra pod sa daghang nagpuyo dinhi kay lagi, gilikopan man mi sa dagat. Sa unang mga panahon, panahon pa sa akong mga ginikanan ug sa ila pang mga ginikanan, daghan pa gyong isda ug ang pagpanagat makabuhi gyod sa among kabanayan ug katilingban.

Ang akong amahan ang mitudlo kanako sa iyang kahanas sa pagbasa sa mga badlis sa dagat; sa mga timailhang gitago sa mga panganod o sa hangin. Nagsugod ko's pagkat-on sa pagpanagat sa dihang pito na ko ka tuig. Hinuon, mitambong ko's tulunghaan sa baryo hangtod nahuman ko's Grade Six.

Apan akong gipalabi ang kamapuslanon sa akong nakat-onan sa pagpangisda ginamit ang karaang kaalam kon unsaon pagpamati sa katam-is sa hoyuhoy, ang huros sa unos, kabangis sa bagyo nga moduaw sa mga buwan sa ting-uwan. Nasag-ulo gani nako ang awit namong mga sakayanon nga panawag sa hangin:

Krutsay! Ang sakayanon nagtawag sa hangin.

Krutsay! Kon ang kalantap sa dagat nagsakit,
Kalaay gayod, kabug-at sa gaod
Ug kainit nga daw mamahit…

Banay ug katilingban

Ang akong mga igsoon ug ako nanginabuhi diha sa pagpanagat sa Kabisay-an. Apan ang among balay ug banay nia sa Mindanao. Si Manong, among kinamaguwangan, minyo ug walo nay ilang anak; ang sunod si Manoy, way plano nga magminyo kay nakita niya ang kalisud ni Manong. Ako? Aw, nangita pa. Wa pa lagi intawo'y

mitukob sa akong paon, bisan pag mananoy kong mo-awit: *Kon ikaw, Inday, mangita'g pamanhonon, siguro-a baya Inday, ang Bol-anon.* Aw, wa ko matawo sa Bohol, apan ang akong mga ginikanan didto natawo unya milangyaw nganhi sa Mindanao kaniadtong 1920 dihang nanghatag ang kagamhanan og yuta

sa mga namalhing mag-uuma'g mangingisda'ng gikan sa Bisayas ug Luzon. Kaming mga laki, makamao sab mangisda, walay kahadlok mopalawod bisag magmug-ot ang panahon. Niadto bitawng 2009, mipalawod si Manong sa wa pa ang balita nga umaabot ang bagyong ginganla'g Send0ng. Ingon niya kanunay:

"Dili angay'ng mabalaka. Sayud baya ta nga ang kanaway sa amihan matag

talitapos sa tuig hinay ra kay sa habagat." Ang karaang kanta nagkanayon:

Midag-om, midag-om na dapit sa atong habagatan.
Pagbantay-bantay mga kauban! Ang timbangan dili pagbiyaan.
Ayaw baya'g kalimot nga gikalisangan 'ning hangina
mogisi sa layag, moguba sa atong sakyanan.

Pastilan kamakalilisang ni Sendong! Si Manong nahanaw
sa kadagatan, sa kabangis sa bagyo'ng way gipasaylo.

Pangutana'g kahingawa

Sa hisgot-hisgot namong mga sakayanon, way labing kusog niadtong bagyoha. Karon, namatikdan namo'ng nagkanihit na gyod ang among mga kuha. Nagkanipis na ang buhing lawas sa dagat ug nagkagutay-gutay na ang among naandang pangisdaan. Kining maong kausaban tungod kuno sa bahong anu-os

gikan sa puting lubot sa mga dagko ug dato nga mga nasod sa kalibotan. Hangtod karon, nagpabilin kong gabugsay lang gihapon. Walay motor ang akong sakyanan. Alingog-ngogan ko's kabanha sa makina! Wa pod koy diyot pagasolina. Daghan dinhi sa among lugar ang sama kanako. Karon nga nagkanihit na ang

adlaw-adlaw namo'ng kuha, nagpangutana mi: asa man mipaingon ang mga Tulingan?
Katambak? Bugaong? Pa'utpot? Bugo? Sugi ug Iho? Lakip na ang mga isda sa bato?
Mulmol? Danggit? Ang makalanang nga Botete? Nabalaka pa gyod mi kay ang dagat
naghinay-hinay na'g kaon sa among gamay'ng isla. Inig taob, ang gitas-on sa mga balod
molampas pa sa kinatumya'ng dahon sa mga Pagatpat sa baybayon!
Unsan na lang ang among panginabuhi? Hangtod karon, pobre pa gihapon mi!

Pahimangno

Paita jud ning kinabuhi-a! Dili ko na matugkad ang dugokan sa mga sambingay nga nakat-onan ni Tatay ug sa iyang Tatang: "Ang kinabuhing sakayanon usa ka paglawig sa lawod sa kapalaran." Sa pagkakaron, ang layag sa akong barotong gamay gisi-on na, ug wa koy kapaingnan sa akong kakabos. Ugma kon (palayo ra) mohulga na usab ang

laing bagyong makalilisang, ug ang kadagatan dili na gyod madupa sa among kaalam ug kaantigo, mosinggit ko sa tumang kaisog:

Timbang kamo! Hinubig kamo!

Dagan ngari! Dagan ngadto!..

Matod pa sa akong amahan, ang awit sa mga mangingisda
nagtago sa kamatuoran luyo sa kananoy sa iyang huni,
kay sa kinauyokan nga matukib lamang sa panumdoman,
ang mga garay mao ra usab ang mga giya kon unsaon
pagpakabuhi ning kalibotana.

Sa awit pa, ang kanaway sa habagat magtayhop og makalilisang hangin.
Apan daghang lawas ang gidagit sa dagat sa hangin ni Yolanda.
Kinahanglan na gyod pulihan og mga bag-ong pulong ang karaang alawiton:

Midag-om, midag-om na usab ang atong kalibotan.
Pagbantay-bantay mga silingan!
Kabanayan dili pagbiyaan. Ayaw baya kalimot nga
gikalisangan kining bagyoha,
karak-an sa dagat moguba sa atong dakbayan…
Pag-igmat kamo! Pamakwit kamo!

Igo na kaha kining sakayanong pahimangno? Kon dili, unsa pa man ang kinabuhi?



크룻사이[3]

만남

저는 밤새 고기를 잡다 방금 돌아왔어요, 이지러진 달이 떠 있는 시기이니까요.
우리는 고기가 잔뜩 잡히길 바라며 어부의 운을 시험해 봤죠.
제 바지는 아직도 축축이 젖어 있고, 지금 저는 요즘 시대에 어부로서 사는 게 어떤지
당신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에 적절한 옷차림도 아니로군요.

이곳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저는 그저 평범한 어부예요, 우리는 그야말로
바다에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과거에는, 우리 부모님들의 시대와
그분들의 부모님들의 시대에는 바다에 고기가 정말 많아서
어부로 일해도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를 먹여 살릴 수 있었죠.

아버지는 제게 바다의 문장들과 구름에 숨겨진 기호들을 읽어내는
기술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일곱 살이 되었을 때
뱃사람으로서의 삶을 배워 나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6학년을 마칠 때까지 우리 바리오[4] 학교도 다녔어요.

저는 고기잡이와 관련된 실용적인 지식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미풍의 감미로움, 우기에 찾아오는 세찬 스콜과 무시무시한 태풍에
귀 기울이는 법을 알려주는 오랜 전통이 저를 그 지식으로 이끌었죠.

---

3 Krutsay. '선원들이 남서풍을 부르는 소리'를 뜻하는 세부아노어.

4 Barrio. 스페인어권 국가에서 도시의 한 구역을 일컫는 말.

저는 심지어 뱃사람들이 바람을 부를 때 부르는 노래도 전부 익혔어요:

크룻사이! 뱃사람이 바람을 부르고 있네.
크룻사이! 바다의 광휘가 마음을 아리게 할 때,
오 얼마나 지치는지, 노는 얼마나 무거운지,
태양은 또 얼마나 날카롭게 우리를 찌르는지……

가족과 공동체

저와 제 형제들은 비사야 제도[5] 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예요. 이곳 민다나오가
우리 가족의 고향이죠. 큰형 마농은 결혼해서 자식을
여덟 명이나 낳았어요. 둘째 형 마노이는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큰형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보이니까요. 저요? 저는 아직도 찾고 있어요. 애석한
일이죠, 아직 아무도

제 미끼를 물지 않았다니, 제가 이렇게 감미롭게 노래하는데도 말이에요: *인다이*[6]
여, 만일 남편을 골라야 하거든 보홀라노[7] *를 택하라.* 음, 제가 보홀 출신은 아니지만
제 부모님은 보홀 출신이죠, 두 분은 아주 오래 전인 1920년에

5 필리핀 제도의 중앙부, 루손섬과 민다나오섬 사이에 흩어져 있는 섬의 무리.
6 Inday. '소녀'를 뜻하는 세부아노어.
7 필리핀 제도 중부의 보홀섬에 사는 사람.

정부가 비사야 제도와 루손에서 온 농부와 어부였던 정착민들에게

민다나오를 임대해 주었을 때 이곳으로 오셨죠.
우리 집안 남자들은 모두 고기를 잡을 줄 알고, 날씨가 몹시 안 좋을 때도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농은 태풍 센동이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바다로 나갔죠. 마농은 늘 말했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연말이 되면 북동풍이 남서풍보다 더 부드러워진다는 걸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옛 노래에도 이르길,

남서쪽이 어둑어둑해지고 있네.
경계를 늦추지 말게, 동료들이여,
돛대와 활대를 포기해선 안 돼.
그리고 이 바람의 무시무시함을 잊지 말게,
그것은 우리의 돛을 찢고, 우리의 배를 난파시킬지니……

태풍 센동은 어찌나 무시무시했던지! 마농은 그 무엇도 용서하지 않는
악랄한 바람 속에 바다에서 실종되고 말았어요.

질문과 답

우리 뱃사람들은 센동보다 강력한 태풍은 없었다고들 말하죠.

그리고 우리는 어획량이 갈수록 줄어드는 걸 알아차렸어요. 바다의 살아 있는 몸이
갈수록 말라 가는 듯하고, 우리가 늘 가는 어장은 죽어 가고 있어요.
이런 변화는 세계의 크고 부유한 나라들의 순결함

이면에서 생겨나는 더러운 연기 때문이라고들 하더군요.
저는 지금까지도 직접 노를 젓고 있어요. 제 배에는 모터가 달려 있지 않죠.
저는 기계가 내는 소음이 싫고, 연료비를 낼 돈도 없어요.
우리 어촌에 사는 많은 이들이 저와 같죠. 그리고 우리의 일일 어획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므로, 우리는 계속 물어요: 고등어는 다 어디로 갔지?
놀래기는? 살벤자리는? 주둥치는? 망둑어는? 학꽁치랑 상어는?
산호초 사이의 고기들은? 비늘돔은? 독가시치는? 독이 있는 복어는?
우리는 바다가 천천히 우리의 작은 섬을 집어삼키는 모습을 봐요. 만조 때가 되면

바다는 해안에 있는 파갓팟[8] 의 가장 높은 곳에 달린 나뭇잎 위까지 차올라요.
그러니 우리의 생업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정말이지
이렇게나 가난한데 말이죠!

8 맹그로브 습지에 자라는 나무의 일종.

경고

인생은 정말이지 어찌나 가혹한지! 저는 더 이상 제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버지가 익힌 비유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요. *"뱃사람으로서의 삶은 우리가 이 행운의 바다를 항해하는 방식이다."* 지금 제 조각배의 돛은 누더기처럼
너덜너덜해져 있어요. 가난한 저는 어디도 갈 곳이 없죠. 내일, (절대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만일 또 다른 태풍이 우리를 위협하고, 바다가 우리의 지혜로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어진다면, 저는 용기를 내어 외칠 거예요:

균형을 맞춰! 물을 퍼내!
이리 뛰고! 저리 뛰어!……

제 아버지는 한때 말씀하셨죠, 뱃사람의 노래는 그 감미로운 멜로디 속에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오직 기억으로만 가닿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곳에서

노래는 또한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법을 보여 주고 있기도 해요.
노래가 불리는 동안, 무시무시한 바람은 남서쪽에서 물러가요.
그래도 욜란다[9] 의 악랄한 바람은 여러 명의 목숨을 앗아 가고 말았죠.
이제 우리는 옛 노래에 새 가사를 붙여 주어야만 해요:

9 2013년에 필리핀을 강타한 슈퍼태풍 '하이얀'의 별칭.

우리의 세상이 어둑어둑해지고 있네.
경계를 늦추지 말게, 이웃들이여, 돛대와 활대를
포기해선 안 돼. 우리는 이 태풍의 무시무시함을
잊어선 안 돼.
폭풍 해일이 우리 마을을 집어삼킨다……
일어나! 떠날 준비를 해!

소박한 어부의 노래 하나면 충분할까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달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이 명 애
Lee Myoungae



대한민국 시인

1965년 평안도 개천에서 태어났다. 2005년 8월에 탈북해 2006년 8월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2016년에 숭실사이버대학교를 졸업했으며 2017년 12월 K-스토리 신인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연장전』(2020), 『계곡의 찬 기운 뼛속으로 스며들 때』(2022) 등을 출간했다.



그리운 손맛

국수가 너무 먹구 시퍼 고향을 찾았다
어릴 때 기대루인 내 고향 집
아궁에서 불이 쎄게 붙구
부지깨로 불찌들을 뫼놓구
펄펄 끓는 가매에 국수를 삶아내는 우리 옴마

흘레흘레 찬물에 헹군 매끈매끈한 강낭국수
아바지가 품딜인 땅속 움
할마니한데서 물레받은 300리따 독
코끝이 쨍한 딤치국물에 말아 낸
옴마의 손맛

후룩후룩 한 사발 뚝딱 먹어치우구
간에 기벨두 안 갔다는 내 동상
피양의 옥류관 저리 비키란다
맥짝해서 죽갔다던 옴마가 웃는다

하루 일 끝난 늦은 저낙
두리반에 뫼앉아 두런두런
일굽 식구 맨날 먹던 우리 집 국수
헷끝에두 못 대보구 잠에서 깬다

그리운 손맛

냉면이 너무 먹고 싶어 고향을 찾았다
어릴 적 그대로인 나의 고향 집
아궁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부지깽이로 불길을 다스리고
설설 끓는 가마에 국수를 데쳐내는 울 엄마

휘휘 찬물에 헹궈낸 매끄러운 강냉이 국수
아버지가 공들인 땅속 자연 냉장고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아름이 넘치는 독
코끝까지 짜릿한 김칫국물에 말아 이낸
엄마의 손맛

후루룩후루룩 한 그릇 뚝딱 해치우고
간에 기별도 안 갔다는 내 동생
평양의 옥류관 저리 가란다
피로를 날려 보내는 엄마의 웃음

하루 일 끝낸 늦은 저녁
두리반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일곱 식구 즐겨 먹던 우리 집 냉면
혀끝에도 못 대보고 잠에서 깬다



만원입니다

새까만 유리벽의 높다란 건물
빙구르빙구르 돌아가는 문
신기하기두 하구 미섭기두 하구
앞사람의 뒤를 바짝 쫓아가다
문틈에 떨꺽 끼우구 말았다

강제로 떡 세버린 문
가슴팩을 짓눌르는 압박
숨 맥히는 시간이 흘른다
어느새 사람들 뫼들구
힘쎈 서나가 잡아땡겨서 삐져나온다

아픔보다 더 띠구운 얼굴
승강기 문이 열리구
빽빽하게 딜이찬 사람들 틈새기루
한발 딜이미는데

'삐'
'만원입니다'
뻐스두 천 원인데
혼자 탄 택시두 아닌데
계단 몇 개 올라가는데
만 원이라구!

만원입니다

까만 유리벽의 고층 건물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문
호기심에 앞서는 두려움
앞사람의 뒤를 바싹 따라가다
문 사이에 덜컥 끼어버린다

강제로 작동을 멈춘 문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
숨 막히는 시간이 흐른다
순식간에 사람들 모여들고
억센 사나이의 도움으로 빠져나온다

아픔보다 더 뜨거운 얼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빼곡하게 들어찬 사람들 사이로
한발 올려놓는데

'삐'
'만원입니다'
버스도 천 원인데
홀로 탄 택시도 아닌데
계단 몇 개 올라가는데
만 원이라니!



축구 선수

데 집 딸이 칙구 한대요 녀자 칙구요
엠나가 서나새끼들처럼
다리 너들짝 거리며 뽈이나 차구 다니구
집에 망조가 딜어두 단단히 딜었디 뭐야요
…

데 집은 요즘 서나새끼 같은 딸이
딸라 갲다 줘서
기걸루 먹구 산대요

그 간나가 벨루 크지두 않은데
이악해서 뽈은 잘 차는가 봅디다
국제껭기두 자주 가는데
외국 나갈 때마다 딸라를 얼마씩 받는데
기걸 안 쓰구 애깨서 집에 갲구 온대요

홍볼래개 신났던 당마당 에미네들
배가 아프다

축구 선수

저 집 딸이 축구 선수래요 여자 축구요
여자애가 사내애들처럼
다리 찍찍 벌리며 공이나 차고 다니고
집에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지 뭐예요
…

저 집은 요즘 사내아이 같은 딸이
달러 갖다 줘서
그걸로 먹고 산대요

그 애가 별로 크지도 않은데
영악해서 공은 잘 차는가 봐요
국제경기도 자주 가는데
외국 나갈 때마다 달러를 얼마씩 받는데
그걸 안 쓰고 아껴서 집에 가지고 온대요

흉보느라 신났던 장마당 아줌마들
배가 아프다



창가미어 음찌지
Changamire M'zizi



잠비아 시인

잠비아의 시인, 개발교육자, 문화역사가이다. 부자의 세계와 가난한 자의 세계를 잇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이론과 실천을 연계하기 위해 그들이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총체성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만들어내고, 고취시키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회화와 변화 과정의 목표, 전략, 내용에 관심이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 잠비아대학교(UNZA)에서 교육 및 개발학 석사, 문학 석사, 교육학 학사(BAEd) 등을 취득했고, 잠비아 외교 및 국제 연구 연구소(ZIDIS)에서 외교 실무, 의정서, 홍보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는 현재 유네스코 잠비아 국가 위원회에서 문화,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선임 프로그램 담당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MALILIME

Titwe, titwe
Iyayi titwe dangaza
Akazi amfumu
Alowa msitolo
Namchila wa ng'ombe
Nandodo kumanja
Iyayi titwe dangaza

Ndinabadwa ndi lilime
Mukamwa mwanga lilicikhalire
Apo linati lilankhuleko
Mano anatulukira mukamwa mwanga
Kuti atangatile lilime langa
Pafupi-fupi ndi bongo-bongo yanga;
Pansi-pansi pa maso anga
Cifukwa lilime langa ndi masompenya anga,
Maganizidwe anga, cithethezo canga.

Inde, ndinabadwa ndi lilime
Liri pakati-kati kamakhutu anga
Pakuti lilime langa

Ndiko kumva kwanga konse
Lidziwathu zanga zonse
Zonse zakudya zopikidwa ndi agogo pamoto.
Koma sukulu, sukulu ladula lilime langa

Kuliyetsa ngati mbuli
Yosadziwa tushampeni
Koma cabe munkoyo ndi kachasu
Uyu ndithu ndi wenye.
Paja akulu amati: nguwo yobwereka siilimba m'thupi
Ili lilime lobwereka sukulu yasoka-soka mkamwa mwanga
Silidziwa Lumanda
Silidziwa Vinkubala
Kolowa ndi Chikanda
Masuku ndi Matondo

Ili lilime lobwereka
Silidziwa Ciyato
Silidziwa Nsolo
Cidunu Kabishabisha
Walyako Walya Ndimu
Vikuti naMukule



Ana azakula bwanji
Omwe ndi tsogolo lanu makholo
Abemba amati: 'Imitikula empanga'
Koma zili kucitika mumpangamo
Imitikula ikakula, igulitsidwa Mukula
Kukula kwa m'masukulu
Kupanga ana azungu
Osayankula lilime la cimunthu
Cimunthu cathu akakamba kapena kulemba
Apanishidwa ndi aticha

Akuti cimunthu nichongo kukamba kwavikopo mbuli mukalasi
Koma cizungu ndi lamulo la Boma
Tsono aticha ochita izi
Onani cizungu canu
Capatsa dziko cizungu-zungu
Lingozunguluka m'malo amodzi
Kulibe kuyenda patsogolo
Cifukwa masompenya atsogolo
Maloto athu amakolo
Ndi malilime athu

Malilime acimunthu

Mwambo wa cimunthu

Ciphunzitso catunthu catunthu



혀

쿵쾅거리자, 쿵쾅거리자
오오 그래 쿵쾅거리자 다리를 살짝 벌리고
왕의 부인이
가게로 걸어 들어갔네
파리채와
권위의 지팡이를 손에 든 채
오오 그래 쿵쾅거리자 다리를 살짝 벌리고

나는 혀와 함께 태어났네
내 입 안에 안전히 자리한 혀와 함께
혀가 말을 하길 원했을 때
내 입 안에서 이가 나기 시작했네
내 혀를 지키기 위해
나의 뇌와 아주 가까운 곳
내 두 눈 바로 아래서
왜냐하면 내 혀는 나의 시력이고
나의 사고방식이고, 나의 방어벽이니까
그래, 나는 혀와 함께 태어났네
내 양쪽 귀 사이의 혀와 함께
왜냐하면 내 혀는
나의 모든 청력이고 이해력이니까
혀는 내 모든 걸 알고 있네

할머니가 화덕에서 만들어 주시던 모든 잠비아 고유의 음식을
하지만 학교, 학교가 내 혀를 잘라 버렸네

그건 벙어리의 혀나 다름없다며
샴페인(Champagne)은 모르고
문코요(Munkoyo)와 카차수(Kachasu)만 안다며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지
우리네 어른들께서 말씀하시듯, "빌려 온 옷은 몸에 맞지 않아"
학교가 내 입에 꿰매 준 이 빌려 온 혀
이 혀는 루만다(Lumanda)를 알지 못하네
이 혀는 빈쿠발라(Vinkubala)를 알지 못하네
콜로와(Kolowa)와 치칸다(Chikanda)를
마수쿠(Masuku)와 마톤도(Matondo)를

이 빌려 온 혀
이 혀는 시야토(Ciyato)를 알지 못하네
이 혀는 은솔로(Nsolo)를 알지 못하네
시두누 카비샤비샤(Cidunu Kabishabisha)
왈야코 왈야 은디무(Walyako Walya Ndimu)
비쿠티 나무쿨레(Vikuti naMukule)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날까
대체 누가 내일의 미래인가
벰바 사람들은 말하지, "그루터기가 난 싹이 곧 숲이다"
하지만 그 숲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그루터기에 난 싹이 나무가 되었을 때, 무쿨라 나무는 다 팔려 버렸네
학교는 모든 걸 다 팔아 버렸고
아이들을 유럽인으로 바꾸어 놓았네
우리가 말하거나 글을 써야할 때
우리말을 할 줄 모르는 유럽인으로

선생님은 우리의 혀를 벌주네
그들은 우리의 혀가 소음 공해라고 말하네
교실에서 웅웅거리는 벙어리의 언어라고
하지만 영어는 곧 법이자 국가라고
자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은
자신이 쓰는 영어를 한번 보시라
그것은 나라를 제정신이 아닐 만큼 멍청하게 만들었고
같은 자리에서 원을 그리며 빙빙 돌고 돌게 만들었네
그것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없네
왜냐하면 우리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력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꿈들은

바로 우리의 혀니까

우리의 토착어

우리의 토착 문화

작은 것들을 크게 보는 우리의 전체론적 가르침이니까



KULA

N'cifukwa ciani
Malisece, cinthako mulowa, mungena mumpako ya njuchi?
Zizakulumani
Kunzuna kwa uchi nimfiti yamalaza (yakanthu)!

N'cifukwa nciani
Citseko'co sicotseka?
Onani njoka yotawa mpepo ya Juni (mwina Julai mpepo)
Izakulumani inu njoka'yi ikafunda; italowamo!

Nthawi zina njoka ibisama mumpako ya njuchi,
Kudyako tiana tikumela mapepe kumwelapo na uchi
Inu ofula mufuleko, icho chusi sichisewenza.
Tengani zobvala mubveke thupi kumodzi na muthu.

Bvalani-bvalani
Imwe njuchi izi ziluma zedi (zipaya)
Piringupiringu ngwa njuchi, yoluma ndi imodzi

Bvalani-bvalani
Imwe njoka'yi ilibe mankhwala

Kalikwikwiti saluma, koma akaluma alibe chivumulo!

Bvalani-bvalani
Imwe njoka'yi, mitu ziwiri (niyamaloza)

Kumutu kwako tsitsi
Kukuti sunga bongo-bongo wako
Nzeru yakuya ngati Chiswe (Muswa)

Pamaso pako nsiye
Pakuti sunga maso ako
Cimaso-maso, golidi sizonse zing'anima

Mumakhutu ako ubweya
Akuti sunga makhutu ako
Umoyo wa munthu uli m'khutu
Samva zaanzake anamva nkwangwa ili m'muthu

M'mpuno mwako ubweya
Mukuti sunga mpuno zako
Nunsha-nunsha adanunsha ndi tuvi



Pamulomo pako ndebvu
Pakuti ndani angazoloweretse lilime?
Mpamvu ya imfa ndi moyo zili palilime
Zakudya ndi zakumwa usamalile
Maidya-idya amakono ndi imfa

Kukalevu-levu kako ndebvu!
Kakuti sunga mukosi wako
Ulungu ndi umulungu umapezeka

Munkhwapata mwako tsitsi
Mukuti bisa mtima wako
Dziko lino liri ndi mano

Pachinena pako mavuzi
Pakuti lemekeza cobisika'co;
Ndiye lamulo loyamba lokhala nalo lonjezano.
Ngodala okesa mwazi wacinamwali pakama laukwati;
Alibe ziwanda zogwebana ndi okondedwa ace

Panthaka mauzu ndi mitengo

Pakunena sunga zamdothi, mmadzi ndi mlenge-mlenga
Chuma chili mnthaka
Atsamunda asakubere cuma cacikalire

Tsopano taona timaziba tako twakula tuliciliri
Tukunena munthu wanga'we limba ngati mliri
Anyamata azibambo asakupwanye-pwanye
Timahipu nato tafufumuka
Tikunena, thupi langa'we osafoka
Anyamata, azibambo asakushotokole.

Kachiuno kako kayamba kupita kumwezi
Kakuti iwe tsono ndiwe nyenyezi
Maso onse amu m'dima ali tsono pa iwe
Kulowa kwadzuwa iwe nyenyezi,
Kusakupeza kunja kwanyumba yamako.

Samalila cinamwali cisungu cako ngati dzira
Dzira siliola tsiku limodzi
Chizolowezi ca kholowa chinadyetsa mbatata pansi
Unamwali wako ndiwo moyo wako



Mnyamata nawe penya tsopano
Tumapolo twako twapombosoka,
Tukunena kuti munthu wanga'we longosoka.
Atsikana, azimai asakupange Shepolopolo bola

Kavoice kako kakhala dipi
Kakamba ati thupi lako ndilam'tengo wapatali.
Cikomekome cankhuyu nimfiti
Atsikana azimai azakuikisa 6-6-6 fiti.

Tumamaso twako twapangika molimba,
Tukuti bvina Nyau Makishi upewe tsoka
Maboza ukupukhawo Satana njoka
Ucamuna ndi kutukula moyo wako ndi dziko.

Bvalani-bvalani
Imwe njuchi izi ziluma zedi (zipaya)
Piringupiringu ngwa njuchi, yoluma ndi imodzi
Kalikwikwiti saluma, koma akaluma alibe chivumulo!



성숙

왜 너는 벌거벗은 채 저 벌집에 들어가니
벌들이 널 물 거야
꿀의 달콤함은 매혹적이지

왜 저 문은 닫혀 있지 않은 거니
추운 날씨로부터 도망치는 저 뱀을 봐
녀석은 들어와서 몸이 따뜻해지면 너를 물 거야

때로는 뱀이 벌집에 숨기도 하지
번데기를 먹고, 꿀을 마셔
벌꿀 수확꾼들아 벌꿀을 수확하려거든 연기 말고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좋을 거야
양봉용 보호복을 챙겨 와서 몸과 머리에 쓰도록 해

옷을 입어, 옷을 입어
이 벌들은 사람을 물어, 죽이기도 하지
벌들은 잔뜩 있지만, 쏘는 건 한 놈뿐

옷을 입어, 옷을 입어
이 뱀에 물리면 약도 없어
잔가지뱀[1] 은 물지 않지만

1 Twig snake. 아프리카 토착종인 독사.

한번 물리면 약도 없지

옷을 입어, 옷을 입어
이 뱀은 머리가 둘 달린 뱀
그건 나쁜 징조지

네 머리의 머리카락
머리카락은 말하지, 네 머리를 잘 지켜
깊은 지혜는 개미와도 같지

네 얼굴의 눈썹과 속눈썹
그것들은 말하지, 네 두 눈을 잘 지켜
반짝인다고 전부 금은 아니지

네 귓속의 털
털은 말하지, 네 귀를 잘 지켜
인간의 생명은 귀에 달려 있어
충고를 잘 듣지 못하면 머리에 도끼가 날아오는 소리를 듣게 될 거야

네 콧구멍의 털
털은 말하지, 네 코를 잘 지켜
후각 감퇴증 환자는 똥 냄새를 맡았지

네 입 위의 콧수염
콧수염은 말하지, 누가 혀를 길들일 수 있겠어
삶과 죽음의 힘은 혀에 존재하지
먹고 마시는 걸 조심하도록 해
오늘날의 패스트푸드는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니까

네 턱의 수염
수염은 말하지, 네 목을 잘 지켜
목걸이는 곧 깊은 신앙심이니까

네 겨드랑이의 털
털은 말하지, 네 심장을 숨겨
이 세상은 이빨을 지니고 있으니까

네 치골의 음모
음모는 말하지, 너의 사적인 부위를 존중해
그것은 지켜야 할 제1계명이야
부부의 침대에서 숫총각의 피를 흘리는 자는 복된 자이니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연인을 괴롭히는 악마가 달라붙지 않을 거야

땅 위의 풀과 나무
풀과 나무는 말하지, 땅 아래에 있는 것, 물과 공기 중에 있는 것을 잘 돌봐

부(富)는 땅에 있나니
이방인들이 네가 물려받은 부를 도둑질해 가지 못하게 해

이제 너의 작은 가슴이 익어서 단단해진 걸 봐
가슴은 말하지, 친구여 전염병처럼 강해지렴
소년들과 남자들이 너를 짓뭉개지 못하게

너의 작은 엉덩이도 이제 생기가 돌아
엉덩이는 말하지, 내 몸아 약해지지 말고 부디 잘 자라렴
소년들과 남자들이 너를 톡톡 두드리지 못하게

너의 작은 허리는 이제 달로 가
허리는 말하지, 너는 이제 별이야
어둠의 모든 눈이 너를 쳐다보고 있어
저녁노을과 사랑스러운 별이
너의 농가 밖에서 너를 찾지 않게 하렴
너의 통과 의례를 달걀처럼 지켜
달걀은 하루 만에 썩지 않지
고구마 이파리와 친하게 지내다 보면 고구마까지 먹게 되지
너의 순결한 여성성은 너의 생명이야

젊은이여 너도 이제 보게 될 거야

너의 작은 고환이 기지개를 켰어
고환은 말하지, 친구여 제발 뉘우치렴
소녀들과 여자들이 너를 축구공으로 만들지 못하게

너의 작은 목소리는 이제 깊어졌어
목소리는 말하지, 너의 몸은 천박하지 않아
무화과의 광휘는 매혹적이지
소녀들과 여자들은 너를 666피트 아래로 끌어내릴 거야
너의 작은 근육은 이제 음영이 생기고 크게 부풀어 올랐어
근육은 말하지, 나쁜 징조를 물리치기 위해 은야우 마키시 가장 무도회(Nyau Makishi Masquarade) 춤을 추렴
거짓말은 사탄, 뱀의 열매야
남성성은 곧 자기 개발이고 그것이 너의 나라를 바꿔 놓고 있어



UNTHU

Kambewa iyaye
Kambewa iyaye
Sikanganilume iyaye
Sikanganilume ine kambewa

Akulira Adada
Amama atengedwa ndi nkhani yamalaiti
Sadziwanso cikondi
Akuti malaiti
Afuna malaiti, safuna cikondi
Safuna cikondi, afuna malaiti

Adada akulira
Iwo sizesiko yopatsa malaiti
Koma amama, afuna malaiti
Ndi mlongo wanga, akuti malaiti
Koma nsima, kamtaka, saapika
Kapena Mpiru, uyu ndi usiru
Ndi malaiti otani akuletsa kupika
Khoswe akakhala pa mkate sapeka
Adada akwiya
Cikakhala coteka uyu koswe adzapeka

Nadyedwa monga mbewa yochedwa ntika

Adada akulira
Cikondi akwanisa osati malaiti
Zesiko malaiti iwo amasira
Popeza ndi tupamela
Dzina la Amama tsono ndi Pamela
Pamene pamala pomwe sipamera
Kuti abale afuna bebi-sita
Zaka zingopita iwo samita
Safuna cikondi akuti sicipimika
Afuna malaiti cifukwa ali ndi mita

Adada akulira…
Amama asowa ndi nkhani ya malaiti
Ife ndife anthu tisanakale amuna kapena akazi
Koma nkhani malaiti ilankhula zina
Akuti ndi akazi cifukwa ena ndi amuna
Umoyo si umuna kapena ukazi
Umoyo ndi unthu, unthu wa umunthu
Nzika zimodzi, dziko limodzi, cikondi cimodzi.



인간다움

작은 쥐는 그럴 수 없어
작은 쥐는 그럴 수 없어
녀석은 나를 물 수 없어
녀석은 나를 물 수 없어, 그 작은 쥐는

아버지가 울고 계시네
권리의 문제 때문에 어머니를 빼앗겨서
어머니는 사랑을 잊었네
어머니는 오직 권리만을 보네
어머니는 권리를 원하네, 어머니는 사랑을 원하지 않네
어머니는 사랑을 원하지 않네, 어머니는 그저 권리만을 원하네

아버지가 울고 계시네
물론 아버지가 집안 식구들을 낳은 것은 아니네
하지만 어머니는 그저 권리만을 원하네
그리고 그건 여동생도 마찬가지네, 여동생은 그저 권리만을 원하네
하지만 여동생은 은시마(nsima)도 요리할 줄 모르지
심지어 야채 렐리시도 요리할 줄 몰라, 이건 바보 같은 일이네
대체 무슨 권리가 요리까지 못하게 하는 건지
빵 위에 앉아 있는 쥐새끼는 죽이기 어렵지

아버지는 격노하셨네
만일 가능하다면, 이 쥐새끼는 죽임을 당해서
은티카(Ntika)처럼 먹히고 말 거라네

아버지는 울고 계시네
아버지는 사랑은 할 수 있지만 권리는 누릴 수 없네
주어진 권리에는 늘 끝이 있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니까
어머니의 이름은 이제 처녀 때 이름으로 돌아갔네
척박한 처녀 시절의 이름으로
어머니가 생각하기에 본인은 처녀 때로 돌아가길 원하므로
그리고 수년이 지나도 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하네
어머니는 사랑을 원하지 않네 어머니는 사랑은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하네
어머니는 그저 권리만을 원하네 왜냐하면 권리는 수량화할 수 있으므로

아버지는 울고 계시네……
우리는 권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 어머니를 잃었네
우리는 성별을 떠나 모두 같은 인간이라네
하지만 권리의 문제는 어머니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하네
어머니가 인간인 것은 어머니가 여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네

삶에는 성별이 없지

삶은 인간성, 모든 인간의 인간다움이라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시민들, 지구인의 인간다움이라네.



사키야마 다미
Sakiyama Tami



일본 소설가

1954년 오키나와현 이리오모테섬에서 태어났다. 류큐대학 국문학과를 졸업하였다. 소설집으로 『무이아니유래기(ムイアニ由来記)』, 『흔들리고 흔들리다(ゆらてぃくゆりてぃく)』, 『구자환시행(クジャ幻視行)』, 『달은, 아니다(月や、あらん)』 등이 있으며 에세이집으로 『남도소경(南島小景)』, 『말이 태어나는 장소(コトバの生まれる場所)』 등이 있다. 2015년에 오키나와의 문화비평잡지 『월경광장(越境広場)』을 10여 명의 동료와 함께 창간해 현재 편집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ゆらてぃく　ゆりてぃく』より

pp.46-

声を荒げて顔を真っ赤にし、憤慨したのは、あらまあ、チルーの方だった。

――ヌーがっ、阿ン母ぁ、人ゆ驚かちっ。

ただでさえまぁるい目をビックリ仰天のうちにいっそう見開き、プリムン娘チルーが、行く手に立ちはだかる母親ウフチラーを、ギッとばかり睨みつけたのだ。目眩ましを食らって一瞬ふらついたウフチラーの豊かな胸を、気負いのままにデデンと押しやって。

――邪魔さんけー、アンマぁ、

我んや、今から、約束ぬあるむんっ

そよろそよろと靡くばかりのいつものチルーの挙措からは、およそ想像もつかぬ、猛々しくも恐ろしき所業であった。これこそ恋の為せるワザ、というものではあったのだろう。昂ぶり、憤り、今にも暴れださんばかりのチルーの腕を、植え込みの茂みに潜んでいたタルガニが、あネッ、と飛びついて捉えると、

――ヌーすがっ、タルガニ兄、

汝ーまでぃん、我んぬ恋路ぬ邪魔すんじナぁ。

と食ってかかる。そんなふうにチルーに詰め寄られても、タルガニとしてはどう言い返しようもない。妹の恋の相手について、とりたてた言い分というものをタルガニが持ち合わせているわけではないので。

――あンねー、有らんしがヨ……

と目グルグルさせるだけ。

ウチフラーはすぐにも気を取り直した。顔一杯に降りかかったネバネバの粟粒を左手で掻き払い、一方の手でチルーの腕をしっかと摑まえている。

――えェー、チルー、今日ーやよ、

此ぬ阿ン母ーぬ言ゆる事ぬ、聞ちとらさんナぁ。

そうやって胸の動悸を抑え、母親としての義務感からやんわりとチルーに言い聞かせるのだった。

――汝ーぬ毎日通いゆる、彼ぬイキガや、

ナガリムンぬプリムンどやんどー、

思わんしが、ましやあらに、

汝ーが、いかに思てぃん、

ナガリムンぬプリムンや、プリムン、

ヌーしちん、プリムンどやしが……。

ここで、チルーの甲高い声がウチフラーの戒めのコトバを絶ち切った。

――阿ン母ぁ、

プリムン、プリムンんじ

あんすか、阿鼻阿鼻さんけー。

いよいよまあるく見開かれた目がウチフラーを睨みつけた。

――我んやてぃん、プリムンどうやる、

プリムンぬプリムンに惚りてぃ、

ヌーぬ悪っさが、

プリムンとプリムン、似合いやあらにっ。

――あいエー、チルう……

と言ったきり、ウチフラーは返すコトバを失った。

――ナガリムンぬプリムン、んじ言ちん、

彼ぬプリムンや、リッパ、イキガやさ、

我んぬイキガー、彼ぬプリムンぬ他ー、
誰ーん無ーらんよ。
思いもよらぬチルーの反撃だった。チルーの理の通った見事なプリムン物言いに、ウチフラーは打ち負かされてしまったのだ。

pp.59
それでもジラーはナビィから手を離さなかった。ゆっくりとした速度で、ワ、という音を発するときのように開かれたナビィの口から、ジラーの耳許に熱い息がかかり、次の瞬間、あたりをとどろかす高らかな声が、座に並び居るヒトビトの耳を打ったのだった。

波ぬぅ声んン、止まぁれぃ
風ぃぬぅ声んン　止まぁれぇ……

まず、対句仕掛けの上の句が、耳を疑うばかりの明瞭な発声で起こされた。世のありとあらゆるモノを、張り上げたその声の力で制する、というように。荒い息継ぎのあと、ナビィは、渾身の力で肩を揺すりあげ、次の、下の句を付けたのだった。

ホタラぁ御主加那志ぃぬぅ
御顔ぃ拝まぁ……

まさしく神が誦さしめたとしか言いようのない、猛々しくも神々しき辞世のウタであった。



『흔들리며 흔들리다』에서

pp.46-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화를 낸 건 다름 아닌 치루였다.

- 무슨 짓이에요, 엄마. 놀랐잖아요.

기겁을 한 치루는 가만히 있어도 크고 동그란 눈을 더욱 크게 치뜨고서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엄마 우후치라를 매섭게 쏘아보았다. 예상치 못한 딸의 행동에 순간 휘청거리는 엄마 우후치라의 가슴을 치루는 거칠게 밀쳐내며

- 저리 비키라고요, 엄마.

난 지금 약속이 있다니까요.

평소에는 조신하고 순종적이던 치루였지만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사납고 무례하다. 사랑이 만들어낸 변화란 이토록 엄청난 것일까. 흥분과 분노로 가득 차 당장이라도 폭발해 버릴 것 같은 치루의 팔을 우거진 덤불 속에 숨어있던 오빠 다루가니가 나타나더니 외마디 소리를 내지르며 낚아챈다.

- 왜 이러는 거야, 다루가니 오빠.

오빠마저 내 연애를 방해할 셈이야?

치루가 덤벼들어도 오빠 다루가니는 달리 반격할 말을 찾지 못했다. 여동생이 사랑하는 상대에 대해 특별히 거들 말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 아니, 이러면 안 되잖아.

다루가니는 이렇게 말하며 눈만 멀뚱멀뚱할 뿐이다.

우후치라는 곧장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얼굴에 쏟아진 진득진득한 좁쌀을 왼손으로 훔치고 오른손으로는 치루의 가슴팍을 거머쥐고 이렇게 말했다.

- 저기, 치루, 오늘 말이야,

이 엄마가 하는 말을 잘 들어 보거라.

우후치라는 요동치는 가슴을 억누르며 딸 치루를 설득하는 것이 엄마의 의무감이라 여기고 부드럽게 말할 참이었다.

- 네가 매일 만나고 있는 그 남자는,

떠돌이에다 바보 녀석이야.

알고나 있었니?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떠돌이 바보라고. 바보.

어쩌자고 바보끼리…….

타이르는 우후치라의 말을 치루의 새된 목소리가 가로막았다.

- 엄마!

바보, 바보, 바보,

제발, 그만 좀 해요.

치루는 매섭게 치뜬 눈으로 우후치라를 쏘아보았다.

- 내가 바본데 어쩌라고요.

바보가 바보한테 반한 게

뭐 그리 나쁜 일인가요?

바보와 바보가 만났으니 찰떡궁합이죠.

- 아이고, 치루…….

우후치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 떠돌이 바보라 말하지만

그 남자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알기나 해요?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는 바보예요.

하지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고요.

치루의 반격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설득력 있는 치루의 바보 연설에 엄마 우후치라는 완패하고 만 것이었다.

pp.59

그럼에도 지라는 나비의 손을 놓지 않았다. '와' 하는 말을 내뱉을 때처럼 서서히

열리는 나비의 입에 지라는 자신의 귀를 갖다 대었다. 나비가 내뱉는 뜨거운 숨을 막 느낄 찰나, 돌연 사방을 뒤흔드는 굉음이 주변 사람들의 귓전을 때렸다.

파도 소리여, 멈춰라
바람 소리여, 멈춰라…….

대구를 이루는 첫마디가 귀를 의심할 만큼 분명한 목소리로 전해졌다. 그것은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제압하기 위한 외침 같았다. 뒤이어 거친 숨을 몰아쉰 나비는 혼신의 힘을 다해 어깨를 들썩이며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나갔다.

호타라의 수호신, 우슈메가나시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야말로 접신했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신들림의 노래였다.



『ホタラ綺譚余滴』より

pp.120-

――えェー、タイチー、

――何ーが、ヌーがヨぉ。

――マミドマ姉や、ヌー成てぃ居ーが。

――何如成てぃ居ーが。

――我ッ達ーが、考ーや無らんしが。

やんややんやとテンデに押し寄せられても、マミドマの突然の異変について、説明できるひと言も、タイチーにはない。

――誠ゥ、何如成たがやあ……。

と掛けられたコトバをおうむ返しにするだけ。頼りのタイチーの頼りない応答に、いっそう不安をかき立てられたミヤラビらは、いよいよカチャーシーを盛りあげ、お互いをヒヤみかしドンみかし、ヒヤヒヤヒヤッ、ドンドンドンッ。

――あいヤぁ、マミドマ姉ヨぉ。

――あンすか、慌てぃてぃ。

――あンし、胴間脱ギィてぃ。

――あいエぇ、あンし、はへはへし……。

オロオロと、ヨロヨロと、ミヤラビらは足腰を弱りのままに、ヨタつかせガタつかせ、あいヤぁあいエぇとマミドマを指差す。右往左往しつつも、マミドマのそのドゥマンギィた振るまいに我も負けじと、またしてもアマ走いクマ走いを再演するのだった。マミドマやタイチーからは顔を逸らし心を逸らし、カチャーシーを元のノリに戻したミヤラビらは、空に手舞い、水に足

舞い、慌てぃハーてぃ、はへはへはへはへ……。こうなったからには舞いあがったこの身をそうかんたんに収めるわけにはゆかぬと。

pp.132-

幼い童ングァの蒸発事件だった。

まだその頃は、各家々に七、八名ほどは普通にたむろしていたワラビン達の数が、気が付くと五、六名、いや三、四名に減っている、という奇妙な現象が彼方の家此方の家の内部でひき起こされていた、というのだ。これは、ひたすら働くばかりで極端に数字に疎いホタラの母親たちが、自分の産み落としたワラビングァの数をうっかり詠み間違えてしまった、というような、間のヌけた話では、ない。ホタラのワラビンチャーは何十年何百年いや何千年ものあいだ、毎夕畑から泥まみれになって帰ってくる母親にまつわり、食い物を要求し、意味故事の分からぬことを阿鼻ちらかし、ドタバタギャアギャアとアマの家でもクマの家でも確かに実在していたのだから。

〔…〕

――誠ウ、フシンな事ぬあンヨ……。

だがそう呟くだけで、それ以上のことを詮索してみる気力は二人ともに湧かない。

事件は謎のままホッタラかされた。

『호타라 기담 여적』에서

pp.120-

- 저기, 다이치.

- 왜? 무슨 일이야?

- 마미도마 언니는 도대체 왜 저래?

- 글쎄, 왜 저러지?

-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도무지 알 수가 없네.

다이치에게 이러쿵저러쿵 말해 봤자 마미도마에게 생긴 급작스러운 이변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다.

- 정말 왜 저럴까…….

다이치는 자신이 들을 말을 그대로 내뱉을 뿐, 달리 할 말이 없는 듯했다. 시원한 답을 기대했지만 그 기대를 저버리는 다이치의 반응에 소녀들은 불안해져 결국 가차시 춤만 격렬히 추며 히야히야히얏 돈돈돈 하고 서로 몸을 움직일 뿐이었다.

소녀들은 비틀비틀 휘청휘청한 몸을 억지로 가누면서도 마미도마를 가리킨다. 우왕좌왕하는 가운데서도 마미도마의 그 놀라운 움직임을 보고는 질세라 다시 이쪽으로 내지르고 저쪽으로 내지르며 재연하는 것이었다. 마미도마나 다이치의 얼굴은 보지도 않고 마음도 주지 않은 채 초반의 기세처럼 흥겹게 가차시 춤을 추던 소녀들은 허공에다 손을 내지르고 물에다 다리를 내지르며 격한 움직임을 이어나갔다……. 이렇게 춤을 추게 된 이상 그렇게 간단히 멈출 수는 없는 법이다.

pp.132-

그것은 바로 어린 아이들이 증발해 버리는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만 해도 보통 집집마다 일고여덟 정도는 살고 있던 아이들의 수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대여섯, 아니 서너 명으로 줄어 있는 기묘한 현상이 이 집 저 집 할 것 없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는 오로지 일만 한 탓에 극단적으로 숫자에 어두워진 호타라의 어머니들이 자신들이 낳은 아이들의 숫자마저도 착각해 잘못 기억하거나 말한 탓이 아니었다. 호타라의 아이들은 매일 저녁마다 밭에서 진흙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를 에워싸고 먹을거리를 조르거나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를 내지르며 어수선하고 시끌벅적하게 굴고는 했다. 그런 집들이 수십 년,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

참으로 희한한 일이야…….

기력을 완전히 소진한 두 사람은 이렇게 되뇔 뿐이었고, 사건은 수수께끼로 남아 방치되고 말았다.

磯端のウタサー砂上に踊る

カラ三線グァ担み
うみばたに立っちょんど
夕間暮までぃ我身や
ただ独り

うみばたといっても鉛色の水面はまだ見えてこない
見えないうみを向こうに見ていると思っていたらうみは足許にあった
ウリッ　ここってばここ
砂子でかためた座ぶとん
オキナワのビンボー詩人がうたった座ぶとんのウタの
からんと抜けた世界が広がった
闇に笑う始源のうみのように
砂子のこすれ合いは浜千鳥の声に
チュチュイ　ヒチュイチュイとかしましく啼き散らすので
砂の座ぶとんが
アッチャメー　け舞うれ舞うれすんよ

我身ん舞うい欲さあしが
手ん足んままならん
唄い欲さあしが
カラ三線やりばカラカラし
口サンシンまでぃガラガラし

音ん声ん出ぢゃさらん

男弦は何十年も昔に切れたまま調弦されることはなかった
うす暗い床の間の壁に向かってトゥテーントゥテーンと呟くのは
喉の涸れた女弦の皺の弛み
棹の真ン中でポカンと空いた口が溜めこんでいるのは
掛けられることのなかった中弦の黄ばんだ無念の涎
タイコの腹にぼてりと漲った憎しみの埃をサッと払って
六十年ぶりに抱えてみたさ音の出ないサンシンを
節の凝った震える手で
そうやってサンシン担みうみばたに独り立ったはいいけれど
うみかぜのにおいとてたたない磯端ぞここは
もうすぐにも闇の幕が世界にたれこめるというのに
あたらしいウタのやって来る気配ひとつたたない

音ん無ん三線グァ掻き鳴らしならし
声んならんウタグァ阿鼻散らしちらす
砂の舞うい姿の
可笑しゃ誇らしゃ

屋嘉節にノッた捕虜達のムサムサ物言いが灰色の背骨を砕いている
闇に沈むうみの面でアカ茶けた泡沫が噴きあがった

あれは南洋小唄のサビた掠れ節が洩らす嘆きの息だよ
岩場の陰で涙垂らし滴ッているのは
軍人節をシボシボと掛け合う女男のマブイの尾っぽ
想い切りよーウミチリよーと互に唇を噛み千切るシッブタイ魂が二匹
痩せ枯れた磯のアワビの口ずさむ十九の春を
腹をむいた小波が
ぶっふぁぶっふぁあと嗤うよ嗤う

魂路の彼方眺みやり居てぃん
彼が影や立たん
風の白さの増しゅるばかり
ハイよーハイよー
彼がイクサに掴み捕らったるや
なに故がやたら

踊り子の消えた座ぶとんのうえ
三尺舞ういのちゅら影を
うす汚れた襖の穴に押し込めて
なんどもなんども立ち上がろうとするけれど
座ぶとんのましろいさびしさに引き留められた
地球いっぱいの悲しみと憤怒のエキスを吸いこんで
さらさらさらさらと泣きつづけるまるい空間に腰を抱かれ

行逢い欲さあしが

彼に



물가의 노래 모래 위에 춤추다

허물만 남은 산신 하나 짊어지고
물가에 선다
해질녘까지도 나는
그저 혼자다

물가라고는 해도 납빛 수면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물가 저편을 보고 있노라니 어느새 물은 발밑까지 와 있었다
그래 바로 여기다 여기
모래로 만든 방석
오키나와의 어느 가난한 시인이 부르던 방석에 관한 노래처럼
텅 빈 세계가 펼쳐졌다
어둠 속에서 웃어 보이는 태초의 물가처럼
모래끼리 스치는 소리는 물떼새의 울음소리와 함께
츄츄이 히츄이츄이하고 한동안 울려 퍼져나간다
모래 방석이
가차시 춤을 춘다

나도 춤추고 싶지만
손발이 마음 같지 않고
노래도 부르고 싶건만
허물만 남은 산신은 그저 퉁퉁퉁퉁
입 가락마저도 퉁퉁퉁퉁

가락도 소리도 나오지 않는다

남현은 수십 년 전에 끊어진 채 조현되는 일이 없었고
어두컴컴한 마루에서 벽을 보고서 퉁퉁 튕기는 것은
목소리가 갈라진 여현의 주름
저울대 한 중간에 텅 비어있는 입이 담고 있는 건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중간현의 누르스름한 무념의 침방울
60년 만에 허물만 남은 산신을 껴안고
옹이가 박힌 떨리는 손가락으로 매만지며
산신과 함께 물가에 홀로 섰지만
물 냄새조차 나지 않는 물가에는
이제 곧 어둠의 막이 세상을 감싸려 하는데도
새로운 노래가 들려 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울리지 않는 산신을 울리고 또 울리며
가락 없는 노래를 마구 불러대고
모래가 춤추는 모습에
한참을 우스워한다

야카부시(屋嘉節)[1]를 부르는 포로들의 침울한 이야기가 잿빛 등골을 부수고

1
야카부시(屋嘉節): 오키나와 민요 중 하나로, 긴초마을에 있는 야카의 일본군 장병 포로수용소에서 창작된 것.

어둠에 잠기는 수면 위로 적갈색 포말이 일어난다
이것은 녹슨 남양의 노래가 스쳐가며 내뱉는 탄식
바위 밭 그늘에 눈물이 떨어져 적시고 있는 건
군인들의 노래 가락을 서로 엮어가는 죽은 여자와 남자의 넋두리
잊을 수 없다고 잊을 수 없다고 입술을 깨물고 물어뜯는 젖은 두 혼
야위고 마른 아이들이 물가에서 흥얼대는 열아홉의 봄을
배를 드러낸 작은 파도가
후훗 후훗하고 비웃고 또 비웃는다

넋들이 저 편을 보고 서 있다
그는 그림자도 남기지 않고
바람의 공백은 점점 커져만 간다
하이요 하이요
그가 전쟁에 붙들려 간 건
대체 어떤 연유에서일까

춤추는 이들이 모두 사라진 방석 위
삼척이나 되는 목숨의 그림자를
더러워진 장지문 구멍에 밀어 넣고
아무리 일어서고 또 일어서려 해도

방석 위의 새하얀 쓸쓸함은 발목을 붙잡는다
지구에 가득 찬 슬픔과 분노의 정수를 들이마시고는
바슬바슬 울어대는 둥근 공간을 가득 껴안고
마주치고 싶다
그와



이본느 아드히암보 오우어
Yvonne Adhiambo Owuor



케냐 소설가

1968년 아프리카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태어났다. 케냐타 대학에서 영어 전공으로 예술 학사 학위를, 영국 리딩대학교에서 TV/비디오 개발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호주 퀸즈랜드 대학에서는 문예 창작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독특한 문학적 기법으로 케냐의 복잡한 역사, 문화, 사회를 조명하고 있으며 케냐의 귀족 르완다 난민을 고려한 소설 『귓속말의 무게(Weight of Whispers)』로 2003년 케인상을, 2004년에는 케냐의 예술에 대한 공헌으로 올해의 여성상을 수상하였다. 2014년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은 책 『먼지』 가 폴리오상 최종 후보에 올랐고, 케냐의 저명한 문학상인 조모 케냐타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작품으로는 『잠자리 바다(The Dragonfly Sea)』(2019), 『귓속말의 무게』(2003) 등이 있다.



Bahari ya Kereng'ende

Roho ni mgeni.

Chapter One

Ili kuvuka bahari kubwa kuelekea kusini mwao keren'gende wanao fukuzana maji pamoja na mababu zao huko Kaskazini mwa India walikuwa wamepanda upepo wa asubuhi "kati ya misimu" mojawapo ya maeneo ya mvua ya masika, matlai.

Siku moja katika mwaka wa elfu moja mia tisa tisini na mbili, vizazi vinne baadaye, chini ya mawingu meusi-zambarau, viumbe hawa wa muda mfupi walituwa mikokoni, pwani ya kusini magharibi ya kisiwa cha msichana mdogo. Matlai ilishikana mwezi ulo kamili unaometa kuchamsha kisiwa, wavuvi wake, manabii, wafanyi biashara, mabaharia, wanawake wa baharini, waganga, waunda meli, waotaji ndoto, washona nguo,wendawazimu, walimu, akina mama, na akina baba wakiwa na msisimko ulioakisi bahari ya ya rangi kijani ilo changa na samawati inayotiririka polepole.

Jioni ilitanda kisiwa kikubwa na chenye huzuni zaidi katika Visiwa vya Lamu, wakitembea kutoka Siyu kwenye pwani ya kaskazini, wakisimamisha uvuvi wa Kizingitini meli kabla ya kuruka kusini-magharibi ili kuvuka Mji wa Pate ambao ulikuwatayari una oza polepole kutoka na tamaa zisizo tarajiwa. Iliyojeruhiwa kwa vitendo visivyo na mwisho vya hila,

kuzingirwa,vita, na udanganyifu, kama kisiwa kwamba zilizomo, mji wa Pate uliwekwa alama wakati upweke.mbingu ilimwaga mwanga hafifu-nyekundu juu ya umati wa vizuka wachafu, waliolala ugomvi, utukufu uliopotea, barabara zisizo onekana, na milenia ya zamani njama. Mwanga hafifu uliopenya kwenye mapango ya kale, makaburi, na magofu, na kuashiria kwa watu ambao walikuwa tayari kuishi pamoja na msiba, wakiamini kwamba wakati huo ulibadilisha hata misiba kuwa mwangwi.

Ndani kabisa ya Pate, jogoo aliwika, na kutoka kwenye kina kirefu cha anga sauti ya adhana ilizidi kusikika. Upepo wa bahari uliupeperusha mtandio wa msichana mdogo na kudhihirisha nyele zake nyingi nyeusi zenye mafundo mithili ya mawimbi na kuufinika uso wake.

Akiwa ndani ya maficho yake humo mikokoni, mtoto mchanga mwenye umri wa miaka sita, aliyevalia nguo kubwa yenye maua ambayo itakuwa kiasi chake kila akikua, alitazama mawingu mazito ya dhoruba yakivuma bara. Aliamua kwamba hizi zilikuwa nyayo za shetwani, shetwani ambaye hatua zake ziliacha alama za mwanga rangi ya pink wa kwenye mbingu . Maji ya bahari yalimrukia magotini, na miguu yake isiyo na nguo ikazama kwenye mchanga mweusi huku akiwa amemshika kiumbe mwingine mwenye kukwaruza, paka mchanga mchafu-mweupe. Alikuwa akiweka

Mwanzoni, msichana mdogo alitulia tuli. Kisha akaanguka chini, karibu na kupiga magoti ndani ya maji,huku akimpapasa paka wake. Alinong'ona, "Haidhuru" – Usijali.

"Ayaaaana! Haki ya Mungu…..aieee!"

Kisauti nyororo yenye mshtuko ilisikika kutoka upande wa kushoto wa

mikokoni.“Aii,mwanangu,mbona wanitesa?”Karibu sana.Msichana aliwacha kujifinika na kupitia maji ya bahari yalokuwa yametoka na kufika sehemu wazi funguni.Ayaana akidanda jiwe baada jiwe na paka wake mdogo akiwa amemuambata shingoni.Alitoweka.

Yule mgeni aso mfahamu ,mtu wa Nanjing, aliona kiumbe kidogo kikipaa kwenye mbingu nyeusi,kilizunguka na kuanguka chini kama tawi la mti ulo vunjika;wakati akifanya hivyo,kicheko cha sauti kilimtoka.Wasafiri wenzake,walimuonea huruma kwa maradhi yalo mkumba kutokana na bahari huku wakimtizama wakiwa hawana raha nyoyoni.mwao.Ililuwa si jambo nadra kwa maradhi ya baharini kumfanyamwenye akili timamu kushikwa na wazimu.Yule bwana alilenga macho yake ardhini huku uso wake ukionekana makini.Kipande cha nyama kilomea jicho la kulia kiliongeza mwangaza kichwa chako kiso nyele na shingo ilo onesha mishipa yake.Aligeuka baada kuskia sauti ya mwanamke akiita,Ayaaaana!”.Matumbo yalicheza.Akiwa na kufika ardhini,alijaribu kukisia urefu ulokuweko baina ya chombo na gati ya kushukia huku akitumaini kuteremka chomboni mda uso kuwa mrefu.

Dakika kumi na tano baadae,akiwa amevalia vazi linalo pwaya,mgeni alishuka chomboni.Ilibidi apite maji yenye kina kifupi ili kufika upwa ulokuwa na mchanga mweusi.licha ya kupata usaidizi wa watu asowajuwa aliteleza.Mikono yake iligusa michanga.Alivuta hewa ndani.Milio ya mashetani ilisikika.Hapa ndipo palipo toka minong’ono na wale walokufa mbali na kwao na kwa mda mrefu hawakutafutwa wala kukumbukwa.

Aliona mkono mweupe usoni mwake .Aliushika.Mmoja wa baharia alimsaidia na kumpa mkoba .Mtu alisikika akisema,Itifaki imezingatiwa,"na mara akamfanyia dhihaka kwa siri.

Msafiri alipepesa,huku akiwa hajiskii huru wakati amefinikwa na kutekwa na harufu nzuri udi za usiku.Pumzi zilitowa harufu ya machungwa,zeri ilo nukia and harufu ya kijasho cha baharini kilo changanyika na upepo mzito ulopasha moto mifupa yake. Akidhoofu na kuvuta pumzi.Aligeuza kichwa na kulekea msongamano na fujo la watu wanao wasili.Alitizama dhoruba na upepo ulokuwa ukitanda angani. Kulikuwa wapi huku?Alijivuta vuta polepole na kusonga mbele,kisigino kikizunguka kama ambaye vidole vilikuwa vina macho ya mzunguko.Mwangaza mchache ulipiga kwenye uwa na pink liloanguka kutoka kwa muwaridi mwitu wa pekee ulio mwembamba.

Mwanamume alipita akipepeseka. Alisubiri lile uwa lianguke mchangani ili aliokote.Hapo ndipo alipo liokota na kulitia dominion kulikunja kwa mkono wake mmoja huku mkono mwingine ukitengeza vitu vya maisha viloweza kujaza mkoba wa turubai ulo angikwa mabegani mwake.



잠자리 바다

영혼은 방문자(이방인)이다.

1장

거대한 대양을 건너 남쪽으로 가기 위해, 북인도에 선조를 둔 바다를 좇는 잠자리들이 차분한 '환절기'의 아침 바람, 계절풍의 입당송(introit) 중 하나인 마틀라이에 편승했다. 4대가 지난 1992년의 어느 날, 어두운 자줏빛의 푸른 구름 아래, 이 덧없는 존재들이 한 소녀가 사는 섬의 맹그로브 술 장식이 된 남서쪽 해안에 자리를 잡았다. 마틀라이는 희미하게 빛나는 보름달과 함께 그 섬, 그곳의 어부, 예언자, 상인, 남자 선원, 여자 선원, 치유자, 선박 제작자, 꿈꾸는 사람, 재단사, 광인, 선생, 어머니, 아버지 등을 느리게 뒤틀리는 청록색 바다를 따라 안달하게 만들려는 음모를 꾸몄다.

황혼이 라무 군도에서 가장 크고 뚱한 섬을 시유(Siyu)에서 북쪽 해안까지 터덜터덜 걸어 다니며 키진기티니(Kizingitini)의 어선단을 일으켜 세웠다가 남서쪽으로 급강하하면서 남이 알아주지 않는 갈망의 불안으로 이미 붕괴되고 있는 파테 타운(Pate Town)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그것을 품은 섬처럼 끝없는 속임수, 포위작전, 전쟁, 유혹에 상처를 입은 파테 타운에는 우울한 시간이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 납빛 하늘이 심술궂은 유령, 잠자는 불화, 몰수당한 영광, 보이지 않는 길, 천년이나 응고된 음모의 무리 위로 칙칙한 붉은 빛을 쏟아부었다. 고대의 틈새, 무덤, 폐허로 스며들면서 시간이 심지어 대재앙조차 메아리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믿으며 기꺼이 비극과 동거하려는 사람들에게 약한 빛이 신호를 보냈다.

파테 깊은 곳에서 수탉이 울었고, 깊은 공간에서 소환된 아잔(Adhan) 소리가 점점 더 커져갔다. 바다 바람이 소녀의 레몬빛 녹색 머리수건을 당기며 그녀의 눈 쪽으로 날리는 짙고 검은 곱슬머리를 드러냈다. 앙상한 일곱 살짜리 소녀는 자라면 몸에 맞게 될 커다란 꽃무늬 드레스를 입은 채 자신의 맹그로브 은신처에서 짙은 먹구름이 내륙의 두 다리를 묶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것이 성큼성큼 걸으며 하늘에 분홍빛 줄무늬를 남겨놓는 괴물의 발자국이라고 생각했다. 바닷물이 그녀의 무릎에 찰랑거렸고, 그녀가 또다른 앙상한 존재인 가르랑거리는 더러운 흰색 새끼 고양이를 움켜잡은 동안 그녀의 맨발이 검은 모래 속으로 푹 빠졌다. 그녀는 지금 그녀의 오른쪽에 있는 갈라진 부두를 향해 승객을 태운 채 어찌어찌 다가오고 있는 다우선(dau)보다 그 폭풍—그녀의 괴물—이 먼저 육지에 도착할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참았다. "귀향자들," 그녀는 모든 승객을 불렀다. 와지토(Wajito). 아이는 비가 올 것 같을 때마다 그런 귀향자들에게 의지해서 꼭두각시 인형처럼 움직일 수 있었다. 비 키두데(Bi Kidude)가 엷은 노란색으로 칠해진 중간 크기의 다우선이 편안히 작은 만으로 들어오는 동안 그녀는 기대감에 킥킥거렸다.

흩뿌려진 부드러운 빗방울.

천둥이 힘차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은 모든 귀향자는 남녀 할 것 없이 하늘 쪽으로 눈을 올려 코뿔새처럼 꽥꽥거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소녀는 새끼 고양이를 쓰다듬는 가운데 전율 속에 녀석의 털을 꼬집으며 킬킬거렸다. 녀석은 가냘프게 울었다. "쉿." 그녀가 승객들의 보슬비로 흐릿해진 얼굴을 더 잘 관찰하기 위해 맹그로브 나뭇잎 사이를 쳐다보며 고양이에게 속삭였다—영혼의 선반 중 하나에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꺼내서 곰곰이 생각해볼 수 있는 단어, 이미지, 소리, 분

위기, 색상, 대화, 모양을 찾아서 모으는 중인 아이.

매일 그녀는 비밀스레 이 바다, 자신의 바다의 입구에 가서 서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소녀는 이제 새끼 고양이를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어깨로 옮겼다. 특히 커다란 그 푸른 눈의 시선은 가까이에서 맴돌고 있는 여덟 마리의 황금빛 잠자리의 춤을 따라갔다. 천둥. 다우선은 소녀와 평행하게 움직였고, 그녀는 배의 가장자리에 털썩 앉아 있는 크림색 양복 차림의 한 남자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가 그 불편해하는 남자를 보고 키득거리려는 찰나 높고 괴로운 목소리가 침범하듯 들려왔다.

"아야아아아아나!"

번개가 하늘을 가르자 그 남자에 대한 그녀의 감시는 중단되었다.

"아야아아아아나!"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였다.

"아야아아아아나!"

처음에 소녀는 얼어붙었다. 그러고는 거의 물속에 무릎을 꿇듯 낮게 웅크려 새끼 고양이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고양이에게 속삭였다. "하이두루(Haidhuru)"—신경 쓰지 마. "엄마는 우리를 볼 수 없으니까."

아야나는 아침에 일으킨 천식 발작에서 회복하고 있어야 했다. 그녀의 어머니인 비 무니라(Bi Munira)는 그녀의 조여진 가슴에 정향유를 바르고 그녀의 입에 만병통치약인 검은 칼론지 씨앗을 쑤셔 넣었다. 둘은 벌거벗은 채 담요를 덮고 같이 앉아 있었고, 그러는 동안 허브 냄비에서는 유칼립투스와 민트가 포함된 허브가 김을 뿜으며 둘의 폐의 울혈을 완화해주었다. 아야나는 숨을 들이쉰 다음 숨을 참고는 대구 간유 여섯 테이블스푼을 삼켰다. 그녀는 쓴 혼합물을 꿀꺽 삼키고는 어머니의 감미로운 "도-도-도" 소리에 진정하고 잠이 들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일하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유리, 놋쇠, 도자기가 쨍그랑거리는 소리. 장미, 정향, 랑길랑기(langilangi), 밤메꽃의 향기. 그리고 어머니가 집에서 운영하는 초보적

인 미용실 안에서 들려오는 여자들의 목소리의 억양.

아야나는 애썼다. 그녀는 높은 음조의 바다가 그녀의 몽상을 꿰뚫고 흩어질 때까지 반쯤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녀는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를 들었지만 집요하게 부르는 폭풍을 참을 수 없게 되기 전까지는 침대에 딱 붙어 있었다. 그러고서 그녀는 침대에서 나와 베개를 더 꺼내서 몸처럼 보이게 만들고는 그 위에 시트를 덮었다. 그녀는 높은 창문 밖으로 몸을 비집고 나와 무너져가는 산호 벽에 쐐쇠로 고정된 하수관을 춤추듯 내려갔다. 땅에 내려온 그녀는 며칠 전에 진흙 배수관에서 구출한 새끼 고양이가 문간의 계단에서 몸을 뻗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고양이를 집어서 오른쪽 어깨에 올리고는 해안 거리로 달려갔고, 마침내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작은 만의 맹그로브 구역으로 가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몰래 조사할 수 있었다.

"아야아아아아나!"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식혔다. 새끼 고양이가 가르랑거렸다. 아야나는 다우선을 쳐다보았다. 크림색 양복 차림의 나이든 이방인이 고개를 들었다. 둘의 눈이 마주쳤다. 아야나는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채로 맹그로브의 그림자 속으로 몸을 휙 숙였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아야아아아아나!" 그녀의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걔가 어디로 간 거지? 아야아아나? 내가 그걸 하느님께 물어봐야겠니?"

아야나는 보트 쪽을 바라보고는 다시 어두워져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보트와 태풍 중에 어느 게 먼저 도착했는지 절대 알 수 없을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과 마주친 그 눈을 기억했다. 그들의 주인이 어머니에게 고자질을 할까? 그녀는 통로를 훑으며 다시 그 눈을 찾았다. 그녀의 어깨 위에 있는 새끼 고양이가 그녀의 목에 얼굴을 눌렀다.

"아야아아아나!" 하키 야 문구…… 아이이(Haki ya Mungu…aieee)!" 위협이 가득 담긴 콘트랄토(contralto)가 덤불숲에서 맹그로브 왼쪽으로 울려 퍼졌다. "아

이이, 므와난구, 므보나 와니테사(Aii, mwanangu, mbona wanitesa)?" 너무 가깝다. 소녀는 은신을 포기하고 썰물을 철벅거리며 지나가 탁 트인 모래로 향한다. 아야나는 목에 새끼 고양이를 매단 채 돌멩이에서 돌멩이로 재빨리 움직인다.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진다.

난징에서 온 이 이방인은 작은 생명체가 검은 하늘을 배경으로 솟아올라서 맴돌다가 부러진 가지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그렇게 하는 동안 그에게서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길게 터져나왔다. 그의 만성적인 뱃멀미를 이미 동정하던 동료 여행자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뱃멀미로 인해 이전에 멀쩡하던 사람이 정신병자로 변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남자는 땅에 초점을 맞추었고, 차분한 얼굴에서는 두 눈이 움직였다. 오른쪽 눈의 백내장은 그의 힘줄이 늘어선 목 위의 대머리에서 빛을 내뿜었다. 그는 "아야아아나!" 하고 부르는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몸을 돌렸다. 속이 울렁거렸다. 육지의 감각을 갈망하던 그는 보트와 부두 사이의 거리를 재려고 애쓰며 곧 배가 부두에 들어가기를 바랐다.

15분 후, 몸에 맞지 않는 양복을 펄럭이며 방문객은 보트에서 내렸다. 그는 검은 모래 해변에 이르기 위해 얕은 물을 헤쳐 나가야 했다. 비록 익명의 손길이 그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도왔음에도 그는 비틀거렸다. 그의 손이 흙에 닿았다. 그는 공기를 삼켰다. 이곳에서는 유령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에서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죽어서 누가 찾아오거나 기억해준 지 너무 오래된 이들의 외로운 콧노래가 들려왔다. 그의 얼굴 앞에 갈색 손 하나가 달랑거렸다. 그는 그 손을 잡았다. 선원 중 한 명이 그의 회색 가방 하나를 넘겨주기 전에 그를 도와주었다. 그 남자는 "이티파키 이메진가티와(Itifaki imezingatiwa)"라고 읊조리고는 은밀한 농담에 깔깔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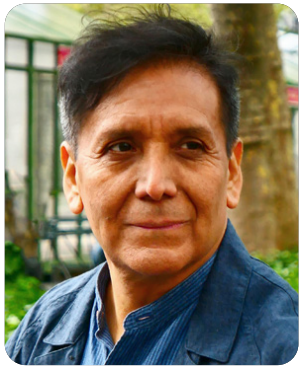
그 여행자는 향기로운 저녁 냄새에 휩싸인 채 불안하게 눈을 깜박였다. 우디

(oudhi)는 마법을 흩뿌렸다. 그가 들이마신 숨은 짙은 공기 중에 뒤섞여 그의 뼈를 뜨겁게 한 쓴 오렌지, 감미로운 발삼 나무, 바다의 땀을 알아차렸다. 굴복, 들이마심. 그러고서 그는 사람들이 도착하며 내는 왁자지껄한 소리 쪽으로 고개를 기울였다. 그는 구르는 조수의 음악을 들었다. 그는 폭풍우가 거의 지평선에서 맴돌고 있는 것을 흘끗 보았다. 이곳은 어떤 곳이었나? 그는 마치 발가락에 두리번거리는 눈이 달려 있기라도 하듯 발뒤꿈치를 회전시키며 느긋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외롭고 가느다란 들장미 덤불에서 떨어지는 분홍빛 꽃잎 위로 창백한 빛이 반짝였다. 그 남자는 비틀거렸다. 그는 꽃잎이 땅에 닿기를 기다리다가 그것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제서야 그는 그것을 입술 쪽으로 가져가서 한 손으로 감싸고는, 다른 손으로 어깨에 매달린 캔버스 가방에 꼭 들어맞는 생명의 응축된 내용물을 조정했다.

Mwenda Pate harudi,
Kijacho ni kilio.
파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한다,
오직 통곡만이 울려 퍼질 뿐.



오디 곤잘레스
Odi Gonzales



페루 시인

페루에서 태어났다. 케추아어, 스페인어, 영어로 된 8권의 시집을 저술한 시인으로 수상 경력이 있으며 번역가, 안데스 구전 전통(16~21세기) 연구자이다. 3개의 언어사전(케추아어, 스페인어, 영어)과 연구 서적을 저술하였고 저서는 『끼워맞추다(machihembrar)의 현재 진행형』(2023), 『Nación Anti-안데스 언어 인류학에 대한 에세이』(2022) 등이 있다. 2008년부터 뉴욕대학교에서 케추아어와 문화, 안디나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페루와 미국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UMANTUU

maytaña riqtiykipas k'uychi / sirena

sillwi tinyachaykiwan qan
sut'inta waqyaripuway
k'ita puriq almayta

uri manchali
salqay salqay erqe
t'anpa chukchanta
rutusqankumantapacha

ama hina kaychu palla
kutichimuy takiq challwa / sipas
waktaykita waqyapayaspa

hunt'a ñuñuykimanta lluy
phoqchirimuq q'ata / ñukñuykita
qhawa qhawaychispa
maypiña tupaspaykipas rit'iy rit'iy
mana rikhuriq phuyuq t'ikan / qoya

kutichimuy q'osti

ch'usaq phuyuman t'inkisqa
ayqeq almayta

ñawpachimuy yaw mana puñuq
siwiq t'alla, chakinpamuy
ch'ayñakunaq ñanninman
qhatakunaq patanman

maytaña chayaqtiykipas
wayray wayray aklla
tusuq wayra, pusarimuy

chinkaq almayta
aysarimuy chutarimuy
chakinpamanta sichus
mana hamuyta munaqtinqa
kay chiri khutu
aya hayt'ayman



우만투

당신이 가는 곳이 어디든,
나의 무지개 사이렌이여,
그대의 집요한 탬버린 소리와 함께
방랑하는 내 영혼을 불러주오 / 겁먹은 내 영혼을

처음 머리카락이 잘린 이후로
야생적이고 고요해진 영혼을

유혹해주오, 심연의 디바여
그대의 술책과 그대의 애무로

농밀한 젖이 담긴
그대의 비옥한 가슴
심술궂게 드러내며

그대가 맞닥뜨리는 곳이 어디든, 보이지 않는
안개의 꽃이여
천식과 상상의 군대와 함께
도망치는 내 영혼에 마구를 채워주오

이제 그것을 인도해주오, 잠 못 이루는 사이렌이여 / 휘파람을 불며
오색방울새의 좁은 거리 옆에서 / 절벽의

길 옆에서

그대가 도착하는 곳이 어디든, 방랑자여
사나운 폭풍의 정령이여

길 잃은 내 영혼 이끌어주길
아주 깨끗한 공기의 동반자여
만일 내 영혼 가길 원치 않는다면 / 끌고 가주길
여기 내 임종의 자리로



Q'ESINTUU

manañan ukhun ukhuykunapi
waqraphukuq hunt'a kallpay
chaninta talliykunñachu

manañan pututullaypas, ch'in
ch'akayasqa uywa qhanqoykachanchu
k'itakunaq yuyaynin p'onqopi

qaqapasqa uywa hinan
wañu wañu qhospaykachani
phushu q'esay patapi

manañan thakchu kani

uyapakunin phiñasqa
wakakunaq samayninta
waka waqrata phukuqtiy

ima onqoytaq
t'inkisqa sallaykuna
rataylla rataykamuwan
ukhu pacha

aya wayrachu icha

unphu uywakunaq
khutu samayninchu

phuyunchasqa ñawi
ruruypin yanqa
tuytuykachan mukisqa
ch'iñi challwa

manañan ukhun ukhuykunapi
waqra phukuq hunt'a kallpay
chaninta takyanñachu

puñuypa aysasqan
puñuypa thunkusqanmi
q'osñi phuyunpi pisipasqa

puñuy puñuylla
manaña uyarinichu
uywakunaq thoqaynintapas



퀘신투

그것은 더 이상 내 안에 살지 않는다
뿔피리를 부는 사람의
거대한 힘은

피리 부는 사람의,
반체제 인사들의
사원에서
떨리는 소라 껍질의 거대한 힘은

벼랑에서 떨어진
황소처럼
나는 숨이 턱 막힌다
물로 된 나의 침대에서

어떤 기이한 악령이
나를 괴롭히는가
어떤 쌍둥이 요정이?

피리를 부는 것은 혹시
어둠의 정령일까?

아니면 그것은 연약한 짐승들의

치명적인 숨결일까?

나의 흐리고 고정된 눈 속에서
얼어붙은 호수의
가장 작은 물고기가
죽은 채로 떠다닌다

그것은 더 이상 내 안에 살지 않는다
뿔피리를 부는 사람의
거대한 힘은

연약한 꿈의 평원에서
나를 맞이하는 것은
반추 동물들이 내뱉는 침에 지나지 않을 뿐



ARCABUZNIYOQ MAMACHA

Manan trigo ch'eqtapi t'ikarishaq
papa chakrapi
urpi manchachichu kani

Karaqotomanta tusuqchu kayman

Qosayta sipiqtinku
Wawaykunata nak'aqtinku
uña chitata hina seq'oqtinku
warma umanay

lluy ch'usaqyapuqtin sayarirani
ronderakuna sonqopi

Ikmakuna rayku wakcha warmakuna rayku
awqapanpakunapi ch'isiyani

Tukuy nak'aqpaqmi phiña kani
ejercitopaq / terrucopaq

Nina wantullan phalalayawan

Nak'asqa wallaykuna ch'unkunakunku umaypi
ñak'ariq nunakuna

Intiyaqtin puriyniy tukukun
purun ayapanpakunapi
p'ukru p'ukrupi ayaykunata p'anpaspa

Chaypin waqapakuni
arcabuzchayta llusispa



머스킷총을 든 성녀

나는 밀밭의 허수아비가 아니고, 나의 꽃 피는 감자밭의 허수아비도 아니다
나는 카라코토 극단의 춤꾼인가?
내 남편의 죽음 이후로, 내 아이들이 목이 베여
양처럼 도살된 이후로 / 무고한 성인들의 대학살 이후로
나는 비상 사태 지역에서
저항 단체의 수장이 되었다

나는 양쪽에서 살인자들에 맞서 싸운다
군인으로서 / 테러리스트로서

내 주변의 반딧불이 전차들. 떼죽음당한 나의 부대원들이
내 머릿속에서 들끓는다. 떠도는 영혼들
나의 행군은 초라한 묘지에서 멈춘다
내가 나의 고인을 묻은 무덤에서. 바로 그곳이 내가 눈물 흘리며
내 머스킷총을 손질하는 곳



안 상 학
Ahn Sanghak



대한민국 시인

1962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다. 1988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1987年 11月의 新川」 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고산문학대상, 백석문학상, 권정생문학상 등을 수상하였다. 시집으로 『남아 있는 날들은 모두가 내일』(2020), 『안동소주』(2019), 『그 사람은 돌아오고 나는 거기 없었네』(2014), 『아배 생각』(2008) 등이 있으며, 동시집으로 『지구를 운전하는 엄마』(2018)가 있으며 평전은 『권종대-통일걷이를 꿈꾼 농투성이』(2004), 시화집(詩話集) 『시의 꽃말을 읽다』(2015) 등이 있다.



뒤저구꽃

윗마을 노인이 범부채 꽃씨를 받아갔다

십년도 넘은 날에 빌뱅이 언덕에서 받아온 범부채
화단을 가득 덮고도 남아 여러 집에 나눠준 범부채
시월의 햇살 받으며 다글다글 영글어가는 꽃씨

윗마을 노인이 오그라진 손으로 꽃씨를 땄다

뒤저구[1]들 굴 파지 말라고
옛날에는 논둑 밭둑에 이 꽃을 많이 심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인간 뒤저구들이
무엇에 좋은지 다 캐가는 바람에 이젠 볼 수조차 없는데
이 귀한 게 이 집엔 어찌 이리 많노

아무래도 노인은 범부채라는 꽃이름을 모르는 눈치였다
이 꽃씨 좀 따가도 될니껴?
십년 세월 우리 집 앞을 오가며 얼마나 그 말이 하고 싶었을까
이제야 꽃씨를 묻으면 몇 차례나 꽃을 더 볼 수 있을까

이 가을에 나는 꽃씨를 내어주고 얻은 뒤저구라는 말을 곱씹으며, 두더지를 뒤저구라 부르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감히 범부채꽃을 뒤저구꽃이라 이름지어 불러보았다

---

1 뒤저구 : 두더지

뒤저구꽃

윗마을 노인이 범부채 꽃씨를 받아갔다

십년도 넘은 날에 빌뱅이 언덕에서 받아온 범부채
화단을 가득 덮고도 남아 여러 집에 나눠준 범부채
시월의 햇살 받으며 다글다글 영글어가는 꽃씨

윗마을 노인이 오그라진 손으로 꽃씨를 땄다

뒤저구들 굴 파지 말라고
옛날에는 논둑 밭둑에 이 꽃을 많이 심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인간 뒤저구들이
무엇에 좋은지 다 캐가는 바람에 이젠 볼 수조차 없는데
이 귀한 게 이 집엔 어찌 이리 많노

아무래도 노인은 범부채라는 꽃이름을 모르는 눈치였다
이 꽃씨 좀 따가도 될니껴?
십년 세월 우리 집 앞을 오가며 얼마나 그 말이 하고 싶었을까
이제야 꽃씨를 묻으면 몇 차례나 꽃을 더 볼 수 있을까

이 가을에 나는 꽃씨를 내어주고 얻은 뒤저구라는 말을 곱씹으며, 두더지를 뒤저구라 부르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감히 범부채꽃을 뒤저구꽃이라 이름 지어 불러보았다

아배 생각

뻔질나게 돌아다니며
외박을 밥 먹듯 하던 젊은 날
어쩌다 집에 가면
씻어도 씻어도 가시지 않는 아배 발고랑내 나는 밥상머리에 앉아
저녁을 먹는 중에도 아배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니, 오늘 외박하냐?
-아뇨, 올은 집에서 잘 건데요.
-그케, 니가 집에서 자는 게 외박 아이라?

집을 자주 비우던 내가
어느 노을 좋은 저녁에 또 집을 나서자
퇴근길에 마주친 아배는
자전거를 한 발로 받쳐 선 채 짐짓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야야, 어디 가노?
-예……. 바람 좀 쐬려고요.
-왜, 집에는 바람이 안 불다?

그런 아배도 오래전에 저기 가신 뒤로는 감감 무소식이다.

아버지 생각

뻔질나게 돌아다니며
외박을 밥 먹듯 하던 젊은 날
어쩌다 집에 가면
씻어도 씻어도 가시지 않는 아버지 발고린내 나는 밥상머리에 앉아
저녁을 먹는 중에도 아버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너, 오늘 외박하냐?
-아뇨, 오늘은 집에서 잘 건데요.
-그러게, 네가 집에서 자는 게 외박 아니라?

집을 자주 비우던 내가
어느 노을 좋은 저녁에 또 집을 나서자
퇴근길에 마주친 아버지는
자전거를 한 발로 받쳐 선 채 짐짓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애야, 어디 가나?
-예……. 바람 좀 쐬려고요.
-왜, 집에는 바람이 안 불더냐?

그런 아버지도 오래전에 저기 가신 뒤로는 감감 무소식이다.



안동식혜

일찍이 어매 없이 자란 나는 당연히 우리 집 식혜 맛을 알지 못해서 어쩌다 고것이 땡기는 겨울날이면 내 그리움은 구름재 너머 맏어매 집을 기웃거리곤 하는데, 그 어느 맵찬 설날 아침 차례를 지내러 큰집 가는 길에도 여느 차례 음식보다 먼저 떠오르곤 하던 식혜

차례 음식상 물리고 나면 한 보시기 담겨 나오던 고것, 살얼음 사각대는 맑고 발그레 싹싹한, 생강과 고춧가루와 엿지름을 한데 훌 버무려 걸러 짜낸 물에 뽀얀 찹쌀과 노리끼리한 차좁쌀로 쪄낸 밥알 사이사이 깍둑썰기를 한 무꾸 조각들이 서성이는, 그 위에 채를 친 밤과 땅콩 몇 낱 고명으로 올린, 고소, 시원, 달콤, 매콤, 얼콤한 그 맛은 대개 부뚜막 외진 곳이나 뒤란 축뚜막 위에서 얼거니 녹거니 하며 종내에는 새콤한 맛까지 드는 것으로 설날부터 보름까지 날매동 다른 맛의 깊이를 더해 갔는데, 세배 다니는 집집매동 맛도 생김새도 하나같이 달랐는데

세월은 턱없이 흘러 겨울을 건너는 중 어쩌다 낯선 타관을 떠돌다거나, 고향에 있어도 쓸쓸하고 차가운 밤이면 문득 떠오르곤 하는데, 기중 생각나기로는 구름재 너머 맏어매 집 부뚜막이나 뒤란 축뚜막에 자리 잡은 것으로, 마음은 벌써 달큰한 항아리 곁을 어리대곤 하는데, 그래도 고것과 같이 떠오르는 손맛의 주인이 어매가 아니고 맏어매여서 다행한 일이라고 골백번 생각하며 그리움을 제우 달래나 보는 것인데, 고것 참.

안동식혜

일찍이 어머니 없이 자란 나는 당연히 우리 집 식혜 맛을 알지 못해서 어쩌다 고것이 당기는 겨울날이면 내 그리움은 구름재 너머 큰어머니 집을 기웃거리곤 하는데, 그 어느 맵찬 설날 아침 차례를 지내러 큰집 가는 길에도 여느 차례 음식보다 먼저 떠오르곤 하던 식혜

차례 음식상 물리고 나면 한 보시기 담겨 나오던 고것, 살얼음 사각대는 맑고 발그레 상큼한, 생강과 고춧가루와 엿기름을 한데 훌 버무려 걸러 짜낸 물에 뽀얀 찹쌀과 노리끼리한 차좁쌀로 쪄낸 밥알 사이사이 깍둑썰기를 한 무 조각들이 서성이는, 그 위에 채를 친 밤과 땅콩 몇 낱 고명으로 올린, 고소, 시원, 달콤, 매콤, 얼큰한 그 맛은 대개 부뚜막 외진 곳이나 뒤란 축 위에서 얼거니 녹거니 하며 종내에는 새콤한 맛까지 드는 것으로 설날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날마다 다른 맛의 깊이를 더해 갔는데, 세배 다니는 집집마다 맛도 생김새도 하나같이 달랐는데

세월은 턱없이 흘러 겨울을 건너는 중 어쩌다 낯선 타관을 떠돌다거나, 고향에 있어도 쓸쓸하고 차가운 밤이면 문득 떠오르곤 하는데, 기중 생각나기로는 구름재 너머 큰어머니 집 부뚜막이나 뒤란 축에 자리 잡은 것으로, 마음은 벌써 달큰한 항아리 곁을 어리대곤 하는데, 그래도 고것과 같이 떠오르는 손맛의 주인이 어머니가 아니고 큰어머니여서 다행한 일이라고 골백번 생각하며 그리움을 겨우 달래나 보는 것인데, 고것 참.

우리는
우리의 말을 싣고 간다

2023년 11월 7일 초판 1쇄

펴 낸 곳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펴 낸 이　민현식
지 은 이　토착어로 문학하기 참가 작가들
번　　역　황유원
디자인·제작　㈜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
주　　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12층
전　　화　02-3275-0815
팩　　스　02-3275-3715
이 메 일　gyeoremal@gyeoremal.or.kr
홈페이지　www.gyeoremal.or.kr

비매품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